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 of Hope
RISK GUARANTE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8970호

Tuesday, March 19, 2024 A

“집 팔때 중개수수료 최대 50% 인하”

부동산협 반독점소송 합의
4억1800만불 배상금 지급
셀러만 부담하는 관행 철폐

주택 구입 및 판매 비용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주택 거래 중개 수수료 반독점 소송에서 4억 18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수수료 관행 폐지에 동의하기로 주택판매자 그룹과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미주리주 배심원단은 주택 거래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며 NAR과 부동산 중개업체 2곳에 약 18억 달러의 손해 배상 책임을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반독점 소송으로 판결액의 3배인 54억 달러를 배상할 위기에 처한 NAR은 항소를 표명했다. 그러나 다른 중개업체들이 먼저 합의에 이르자 결국 NAR도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이번 합의로 주택 소유주가



집을 팔 때 자신의 중개인과 구매자의 중개인에게 모두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재 관행이 효과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 거래 가격의 5~6%에 해당하는 총 수수료를 지불하는 현재 관행과 달리 낮은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수료가 25~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분석업체 TD코웬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격인 41만7000달러 짜리

주택을 거래할 경우 판매자는 중개 수수료로 2만5000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6000~1만2000달러로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외에도 NAR은 중개인이 고객에게 더 비싼 매물을 추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매물 리스팅 서비스 MLS에 중개인 수수료를 포함하는 의무 조항을 폐지했다. 또한 중개인이 NAR 자회사가 소유한 MLS에 가입해야 하는 요건도 폐지되며 구매자 중개인은 구매자와 서면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낙희 기자

이문열의 현대사, 회고록에 새긴다

분단 등 아픈 담은 ‘시대를 쓰다’
더중앙플러스 연재 앞두고 인터뷰

소설가 이문열(사진)의 삶과 문학에는 격동의 한국 현대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올해 일흔여섯인 그는 1948년에 경북 영양의 양반가 후손으로 태어났다. 일본 유학파에 남로당원이었던 부친 이원철(1999년 작고)씨가 한국전쟁 기간 월북해 집안은 풍비박산났다.



연좌제의 골레를 피해 작가가 된 그는 1980~90년대 최고 인기 작가였다. 사실상 등단작인 장편소설 『사람의 아들』(1979)이 베스트셀러로 사랑받으며 ‘이문열 신드롬’을 일으켰다. 치밀한 리얼리즘(신춘문예 등단 중편 ‘새하곡’), 초월적 교양주의(『사람의 아들』), 분단으로 결단난 현대사(『영웅시대』), 화려한 의고체 문장(『황제를 위하여』)에 이르기까지, 감각적인 수법과 묵직한 주제의 신작에 독자는 열광했다. 영광 뒤에는 상처도 있었다. 월북한 부친의 내면을 허무주의로 채

색한 장편 『영웅시대』(1984)가 진보 진영의 비난을 불렀다.

산문집 제목인 ‘시대와의 불화’(1992)라는 말이 그를 따라다녔다. 2001년 DJ(김대중)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칼럼으로 비판하면서 ‘책 장례식’이라는 문화 참사를 겪었다. 페미니즘과 갈등했고, 보수 정당 공천 심사에도 참여해 논란을 빚었다. 그래도 그는 세상일에 보수적인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았다.

신준봉 논설위원,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 10면 ‘이문열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남학생 대학가기 힘들어진다”...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여파

고교 상위 10% 중 여학생이 약 70%
성적대로 뽑으면 “여학생 비율 80%”

연방대법원이 작년 소수계 대학 입학 우대 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동문자녀 특혜 제도인 레거시 뿐만 아니라 ‘남학생 우대 정책’도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연방교육부 등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고등학교 성적 상위 10% 학생 중 5% 이상이 여학생이었다. 명문대학을 포함한 거의 모든 미국대학이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입학생을 선발할 경우 80% 이상이 여학생으로 채워지게 된다. 그래서 미국 대학에는 성비 불균형

을 막기 위해 남녀 입학생 비율을 안배하면서 ‘남학생 특례’ 현상이 보편화되어 왔다.

아이비리그 중 한 곳인 브라운 대학의 경우 작년 여학생 지원자 대비 합격률은 4%였으나 남학생은 6.7%였다. 성비를 안배하지 않는다면 남녀 입학생 비율은 여학생 80%, 남학생은 불과 20%로 줄어들게 된다.

찰스 데론 조지타운대학 입학처장은 “엄격한 남녀평등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의 모든 대학은 여학생을 심각하



게 차별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MIT와 칼텍 등 최상위권 이공계 대학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여학생 입학에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명문 리버럴 칼리지는 특히 백인 남학생 입학 늘리기 위해 이들의 입학 사정 기준을 낮춰왔다.

여성계에서는 의회와 범조계, 의회계, 첨단 IT 분야의 남성 성비가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고, 전문직일수록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 입학 당시부터 불거지는 남녀차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성적에 따른 공정한 대학 입학 사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대학의 여학생 입학비율은 1983년부터 남학생을 추월했으며, 여자 대학생의 성적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대학 낙제율은 남학생에 비해 낮았고 졸업률은 남학생에 비해

높았으나, 4년제 대졸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82%에 그치고 있다.

명문여대였던 웨슬리여대(사진)는 남녀공학으로 바뀐 후 남학생 입학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골적인 남학생 우대정책을 펴며 5대5 성비를 추구했으나 최근 성적에 따른 공정한 입학사정 정책으로 변경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미국 대학도 어퍼머티브 액션과 레거시 시대 이후 여성차별 입학 시스템에 대한 전면전을 앞두고 새로운 고민에 빠져있다. 김옥채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물리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케어피플 홈헬스
버지니아 메디케이드 웨이버 홈케어
메릴랜드 메디케이드 웨이버 홈케어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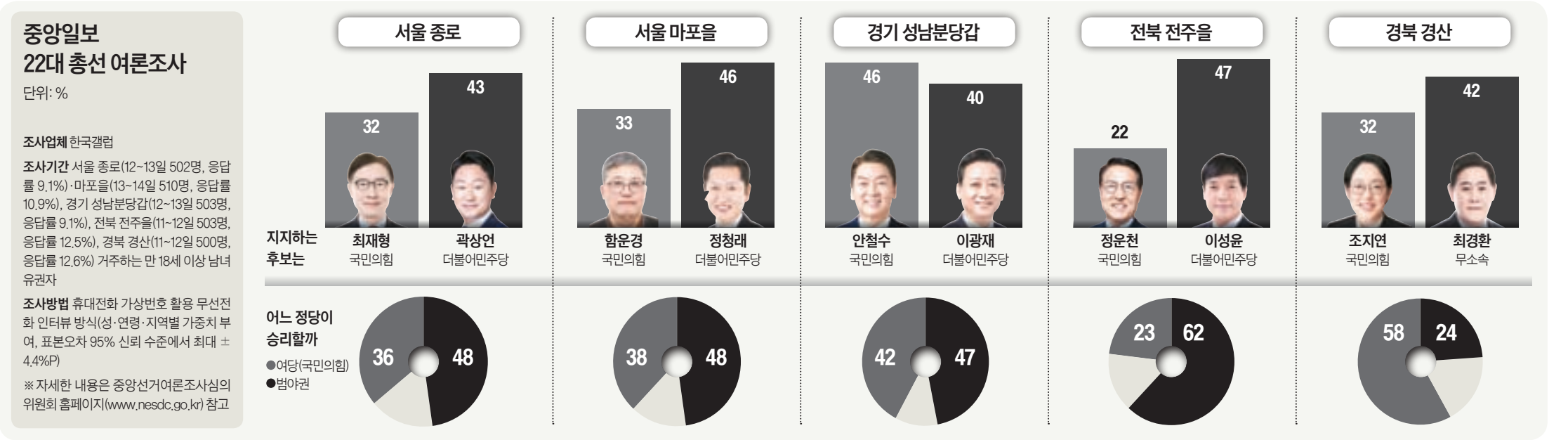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4/15-4/19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Annandale (사랑방)	Annandale (V)	Richmond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최재형 당선예상 광상언 앞서... 이광재, 안철수 근접 추격전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서 수도권 판세가 출렁이고 있다. 서울 종로와 마포를 야당이, 경기 성남분당 갑은 오차범위(±4.4%) 내에서 여당이 우세한 가운데 지역에 따라 제3당 후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1~14일 지역구 5곳(서울 종로, 서울 마포, 경기 성남분당 갑, 경북 경산,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500여 명씩을 상대로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은 전화면접조사 결과다.

여야 간판급 주자가 나선 성남분당 갑(12~13일, 유권자 503명)에서는 현역 의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46%를 얻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40%)를 상대로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대선 출마 경험이 있는 안 후보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이고, '노무현의 남자'로 불리는 이 후보는 3선에 강진지사를 지냈다. 고래 싸움이라고 할 만한 판에 판교 게임회사 출신으로 성남분당갑에서 9년을 살며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류호정 개혁신당 후보도 출마했다. 류 후보 지지율은 3%였다.

안 후보는 통상 야권 지지 성향이 높은 40~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이 후보를 앞섰다. 특히 60대(안철수 67%, 이광재 32%)와 70세 이상(안철수 67%, 이광재 23%)에선 이 후보를 두 배 이상 앞섰다. 류 후보는 전 세대에 걸쳐 지지

율이 한 자릿수였다. 이 중 30대 지지율이 7%로 높았던 반면, 60대 이상에선 1%도 감지되지 않았다.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당선 가능성을 묻자 안 후보 58%, 이 후보 31%로 차이는 더 벌어졌다. 중도 성향 응답자 중 53%가 안 후보, 35%가 이 후보 당선을 예상한 결과다. 응답자의 78%는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고 답했다.

3자 대결이 펼쳐지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12~13일, 유권자 502명)는 지지 후보와 당선 예상 후보의 순위가 엇갈렸다. 종로는 감사원장 출신의 현역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광상언 민주당 후보 간 맞대결에 민주당 출신으로 개혁신당에 합류한 금대섭 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후보 지지도에서 광 후보는 43%, 최 후보는 32%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적극 투표층에선 광 후보가 48%로 최 후보(34%)와 격차를 벌렸다. 그러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에 예상되는 후보'를 묻자 41%를 기록한 최 후보가 38%인 광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7%의 지지율을 기록한 금 후보는 적극 투표층에선 6%, 당선 가능성은 2%였다. 응답자 4명 중 1명(25%)은 투표 전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개혁신당 지지자 중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자가 40%였다. 선거 막판 사표 방지 심리가 강해지면 금 후보 지지층이 다른 후보로 갈아탈 가능성이 다

른 두 후보 지지층에 비해 크다는 의미다. 18~29세의 57%, 30대의 40%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해 30대 이하의 표심이 유동적으로 나타났다.

운동권 출신 후보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서울 마포(13~14일, 유권자 510명)는 3선의 정청래 민주당 후보가 46%를 얻어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인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33%)를 13%포인트 앞섰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으로 4선에 도전하는 정청래 후보에게 맞서 국민의힘은 1985년 미문화원 점거 사태를 주도했으나 이후 전향해 운동권 청산을 내건 함운경 후보를 배치하며 맞불을 냈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후보는 6%의 지지율을 얻었다.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정 후보를 뽑은 응답자(62%)가 함 후보(21%)보다 40%포인트 이상 많았다. 장 후보는 1%였다. '지지 후보를 선거 때까지 지지할 것인가'를 묻자 전체의 73%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는 마포에 포함된 3선거구(정청래 46%, 함운경 30%)와 4선거구(정청래 45%, 함운경 36%)에서 모두 함 후보를 앞섰다. 4선거구는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상암동을 신규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최종 선정된 뒤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중이다.

경북 경산(11~12일, 유권자 500명)은 국민의힘 텃밭인 TK(대구·경북)이지만 친박 좌장으로 불렸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무소속 출마가 변수로

떠올랐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는 32%, 최 후보는 42%로 두 사람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0%포인트였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조사에서는 최 후보가 47%로 조 후보(33%)보다 14%포인트 크게 앞섰다. 이 지역에서 4선을 지낸 최 후보의 인지도가 조 후보보다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조 후보 지지는 48%, 최 후보 지지는 46%였다. 보수 응답자의 두 후보 지지율은 각각 46%로 동등이었다. 두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층 지지세를 양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총 11%였는데, 그중 18~29세(19%), 30대(20%)가 많았다. '다른 후보 지지로 바꿀 수 있다'는 응답도 18~29세(64%), 30대(55%)에서 높았다. 20~30세대가 선거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총선에서 8년 만에 3자 구도로 치러지는 전북 전주를(11~12일, 유권자 503명)에선 이성운 민주당 후보가 47%로,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22%)와 현역인 강성희 진보당 후보(12%)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전주는 2012년(민주통합당·새누리당·통합진보당) 19대 총선과 2016년(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 20대 총선이 모두 3자구도로 치러졌다. 이번에도 민주당 강세 속 제3정당이 일부 표를 잠식하는 형세는 비슷하다.

이 후보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많

은 50대(이성운 60%, 정운천 12%, 강성희 19%)에서 압도했다. 반면에 정 후보는 70세 이상(이성운 53%, 정운천 32%, 강성희 6%)에서, 강 후보는 30대(이성운 38%, 정운천 24%, 강성희 14%)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진보 응답자 중에서는 61%가 이 후보를, 16%가 강 후보를 지지했다. 3자 구도에서 진보 표심이 이 후보와 강 후보로 나뉘면 정 후보가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과는 차이를 보였다. 중도 응답자 중에는 이 후보가 43%의 지지를 얻어 정 후보(28%), 강 후보(8%)보다 앞섰다.

5개 지역구의 비례정당 투표 의향은 제각각이었다. 마포를, 종로, 성남분당 갑, 경산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것은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정당)였으나 더불어민주당연합(민주당 주도 야권 비례정당)과 조국혁신당은 지역에 따라 순위가 바뀌었다.

마포를은 국민의미래 30%, 더불어민주당연합 24%, 조국혁신당 21% 순으로 답했다. 종로는 국민의미래(27%) 다음이 조국혁신당(24%)이었고, 더불어민주당연합(19%)은 세 번째였다. 성남분당 갑의 경우 국민의미래가 38%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연합과 조국혁신당이 21%로 같았다.

경산은 국민의미래(57%)-더불어민주당연합(10%)-조국혁신당(8%), 전주는 더불어민주당연합(35%)-조국혁신당(31%)-국민의미래(12%) 순이었다.

유성운·김효성·이창훈·김정재 기자

워싱턴 날씨 (°F)

20일(수)	61-33	☁️	23일(토)	59-42	☁️
21일(목)	50-33	☀️	24일(일)	55-41	☀️
22일(금)	55-45	☁️	25일(월)	55-45	☁️

3월 19일(화) 53~43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때..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콜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주4일 일하니... 회사 매출 '쑥쑥' 근로자들은 '쌩쌩'

연방의회 법안화 논쟁 가열

연방의회에서 '주 4일, 32시간 근무' 법안이 발의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주4일제 근무를 시행중인 회사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데이 워크 글로벌' 등 3개 조사기업이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기업 40여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1년간의 장기 분석 프로젝트 결과 회사 매출과 근로자 생산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건강이 좋아졌다.

주4일제 시행 기업의 매출은 평균적으로 15% 높아졌다. 근로자 87%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직률이 이전보



다 32% 줄었다. 기업생산성과 성과는 10점 만점에 7.7점으로 0.5포인트 높아졌다. 조사대상 기업 100%는 이같은 성과에 만족하고 앞으로도 계속 주4일제 근무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기간 1년동안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32.97시간으로 떨어졌으나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은 최대 57% 향상됐다.

반면 근로자의 40%가 스트레스가 줄었고 69%가 번아웃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건강 측면에서는 특히 부정적인 마인드가 줄었다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다. 45%는 피로감이 줄었고, 40%는 수면 장애 현상, 39%는 불안장애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근로자 60%는 일과 삶 사이의 갈등이 줄었으며, 74%는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최근 주 5일 근무에서 4일 근무로 전환한 버지니아 페어팩스 거주 한인 정모씨는 "주4일 근무 실시 후 여가시간이 늘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주4일제 근로자의 42%는 늘어난 여가를 통해 친환경적인 활동을 늘렸다고 말했으며, 95%는 주4일제 근무를 적극 지지한다고 답했다.

줄리엣 쇼어 보스턴 칼리지 교수의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자신이 직접 실시한 조사를 설명하며 "32시간제 근무를 채택하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생산성이 상당히 증가했으며, 퇴근 후 근로자의 삶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무소속, 버몬트)은 "임금 감축 없이 주32시간 근무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비약적 발상이 아니다"며 "현재

미국 근로자 생산성은 1940년대에 비해 400% 이상 더 높아졌지만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은 수십년 전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더 오랫동안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더라도 주당 총 임금과 배네티트는 삭감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하루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기존 급여의 1.5배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엔 2배를 각각 지급해야 한다.

한편 공화당은 주 4일제로 전환할 경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25% 더 증가해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업들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더욱 늘리거나, 아예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윤미기자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등 무기 개발·실험...매우 우려"

정 박(사진)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18일 한국의 4월 총선 및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임박한 공격 징후는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고위관리는 이날 공개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팹캐스트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정치 혹은 기술적 필요에 맞춰 도발 행위에 대한 이유를 양산해 왔다"며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핵잠수함, 고체 대륙간 탄도미사일, 군사정찰위성 등 신무기를 개발하고 선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실행 목록을 갖고 있으며, 무기 역량을 개발하고 실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모든 개발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우리가 전쟁의 벼랑 끝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가까운 시기 북한의 공격에 대한 어떤 징후나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수위 아래 '회색 지대'에 속하는 행위들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같은 미



사일 및 무기 체계 실험에 동반하는 연사"라고 지적했다.

박 고위관리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통일과 관련해 한국을 자신들의 주적으로 지목했다"며 "이는 그들의 오랜 통일에 대한 입장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전례없는 수준의 미사일 실험과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발인 수위를 높이며 한반도 안보 긴장을 고조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인 전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시험 발사했다.

한편, 그는 북러간 군사적 밀착에 대해 "북한에서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을 넘기고 있으며, 북한은 물론 이를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들은 아마도 전투기부터 지대공 미사일, 탄도 미사일 기술을 비롯한 기타 기술들을 러시아에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들 무기(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탄약)를 실제 전장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는 실제 전쟁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무기 체계에 대해 배워가는 내용도 있어 굉장히 불안한 순간"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우리는 항상 북한과 대화를 요구해 왔다"며 전제 조건 없는 대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박 고위관리는 "우리는 제3자를 통해 공개·비공개로 북한과 외교를 위해 접촉해 왔다"며 "이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연분홍 복사꽃 필 무렵" 겨우내 추위를 이겨내고 복사꽃이 꽃망울을 터뜨렸다. 꽃말은 매력, 용서, 희망, 사랑의 노래. "나는 영원히 당신의 것"이라는 아름다운 사랑의 꽃말을 담고 있다. 김윤미기자

데이트앱으로 군사기밀 유출

연방검찰이 데이트 앱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군사기밀을 러시아 간첩으로 의심되는 인물에게 넘긴 예비역 육군 중령을 기소했다.

연방법원에 이첩된 기소장에 따르면, 용의자 데이빗 프랭클린 슬레이터(63세)는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후 공군 정보 분야 근무원 신분으로 공군전략사령부에서 근무하며 각종 군사기밀을 다루었다.

용의자는 2022년 2월부터 4월 사이 사령부 내 러시아 전쟁에 관한 각종 전략회의 브리핑에 참석한 바 있다. 그는

군사기밀 준수 서약을 했으나, 미국이 파악한 러시아 전력과 군사적 파괴 목표 등 각종 기밀을 데이트 앱에서 만난 한 여성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자신을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묘사했으나 러시아 정보원일 가능성이 있다. 이 여성은 용의자에게 반복적으로 정보제공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가 넘긴 정보가 구체적으로 미국 안보와 우크라이나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으며,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 금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욱제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니!
보장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매나사스 중·은·친·구

올리브나무교회

장로장립 및 권사취임식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3월 23일 (토) 오후 5시
장소 올리브나무교회 예배당
8800 Sudley Rd., Manassas, VA 20110

• 장로장립: 이대우 • 권사취임: 심영애, 유종민, 이미송

올리브나무교회 탐임목사 강일성 703-473-3233 주일예배: 오전 11시
8800 Sudley Rd., Manassas, VA 20110

조지아 재외선거관 “언론사 감찰 논란”

SPECIAL STORY

애틀랜타 지사 게재 광고놓고 선거법 위반여부 고압적 조사 “한국 입국 금지” 협박성 발언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약·이하 중앙선관위)가 미주 등 해외에 파견한 일부 재외선거관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조사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엄연히 미국의 언론사인 한인 신문사를 한국법에 따라 규제하려는 시도로까지 해석될 수 있어 한인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애틀랜타 중앙일보 등 조지아 주 현지 여러 한인 신문사에 “한국의 4·10 총선에 해외동포세계지도자협의회 김명찬 이사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적극 지지한다”는 광고가 실렸다.

중앙선관위는 이 광고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고 나섰다. 공식선

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해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중이 인쇄물(신문광고, 전단, 홍보지)’은 원천 금지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애틀랜타에 파견된 김낙현 재외선거관이 선거법 위반 조사 과정에서 해당 광고를 의뢰한 당사자와 한인 언론사에 강압적 자세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애틀랜타 중앙일보 측은 “김 선거관은 광고담당 직원에게 마치 수사관인 양 ‘공문을 보냈는데 왜 준수하지 않았느냐’며 추궁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뿐만 아니라 ‘광고비는 얼마를 받았느냐, 담당자가 누구냐, 디자인은 누가 했느냐’는 것까지 캐물고 본인에게 연락해 자문을 구하라고 엄하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애틀랜타 중앙일보 측은 “한국의 선거제도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선거관이 신문사 직원에게 광고 게재 전 자문을 구하라고 엄하게 지시

하는 등 취조하듯 했다”며 “뿐만 아니라 선거법을 위반하면 한인 시민권자라도 한국 입국을 금지한다는 등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김낙현 애틀랜타 재외선거관에게 전화하고 음성메시지도 남겼지만 회신은 받지 못했다.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 참여 독려보다 ‘선거법 위반 단속’에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LA, 뉴욕, 애틀랜타 등 미국 8개 공관, 캐나다 2개 공관에 파견된 선거관이 재외선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한인사회 여론을 전하는 대신 본부인 중앙선관위 지침만 의식한다는 것이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운동을 벌인 LA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선거관들이 현지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치중하는 모습”이라며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공식 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할 선관위가 정작 홍보 활동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행 선거법상 한국 정당은 한인사회에서 광고게재나 인쇄물 배포 등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외선거 참여율이 낮은 이유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재외선거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있다. 만약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시민권자는 한국 입국이 금지되고, 재외국민은 귀국 시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언론의 대선 후보 지지까지 허용하는 미국 실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미국 법에 따라 법인 등록한 한인 언론사 또는 한인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재외선거관이 조사를 벌이는 행위는 주권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국 법무정책연구원은 “한국에서 파견된 정부기관 직원이 파견 국가

의 사전승낙 없이 수사 형태를 벌이면 주권침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재외공관에 파견한 재외선거관중 일부는 일탈행위 등으로 실효성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해외 투표 참여율 제고를 위해 22개 재외공관에 선거관을 파견하고 있다. 미주에는 전체 22명 중 10명이 파견됐다. 지난해와 올해 재외선거관 1년 체류비는 총 17억 원 이상이다.

2011년부터 미국에 파견된 재외선거관 일탈행위는 반복되어 왔다. 지난 2019년 미국내 해외공관의 재외선거관이 임시직원 면접자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해 중앙선관위 측에서 유감을 표했다. 2012년 LA총영사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023년 국회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어학 성적을 확인하지 않고 재외선거관을 해외에 파견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김형재 기자

‘미국상륙’...타인종도 즐기는 ‘할매니얼’ 간식

<할매+밀레니얼·할머니 입맛>

약과·썩떡·흑임자·차·곶감·팥 등 마켓·빙수집·빵집 인기 메뉴로

한국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할매니얼’ 트렌드가 미국에도 상륙했다. 한인들은 물론 타인종 젊은층에서 한국 전통 간식의 인기가 뜨겁다.

약과를 시작으로 썩떡, 흑임자, 호두과자, 차, 옛날 과자 등을 찾는 젊은층이 크게 늘고 있다.

‘할매니얼’은 할머니의 사투리인 ‘할매’와 ‘밀레니얼’의 합성어로, 할머니 세대의 취향에 열광하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의미한다. 할매니얼 열풍에 발맞춰 LA 한인타운에서도 할매니얼을 타깃으로 한 카페는 물론 빙수 전문점, 빵집, 떡

집, 한인마켓 등에서 옛날 먹거리의 판매가 호조를 보인다.

한국 전통간식과 차를 판매 중인 다모는 점심시간과 주말에는 줄을 서야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 다모는 썩와플과 찹쌀떡, 크림치즈호두곶감, 약과, 호두과자가 포함된 다과 세트가 인기 메뉴다.

다모의 테드 남 대표는 “젊은 세대의 비율이 90% 정도”라며 “타인종과 한인의 비율이 6대 4 정도로 타인종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전통 간식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맛과 조합으로 선보인 것이 비결”이라고 덧붙였다.

빙수 전문점인 옥루몽 역시 흑임자빙수, 팥빙수, 인절미 빙수는 물론 아이

스 오미자차, 단팥죽, 호박죽, 불어빵 등 전통 먹거리도 잘 팔린다고 한다.

옥루몽의 한 관계자는 “요새 젊은 소비자층이 크게 늘어 전체 손님의 70%를 차지한다”면서 “특히 타인종 고객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아 한국 문화에 관심이 커진 것을 실감한다”고 설명했다.

코안도르 빵집은 한국 전통 간식과 프랑스 과자를 결합한 메뉴를 내놨다. 특히, 곶감, 약과, 대추를 올린 휘낭시에, 마들렌, 다쿠아즈는 고소한 맛과 달콤한 향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휘낭시에와 마들렌은 한 개에 4.50달러, 4개 콤보는 10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다쿠아즈는 4개 콤보가 20달러다. 또한 코안도르는 60년대 국민학교 급식에서



나왔던 옥수수빵을 그대로 재현한 초당 옥수수 카스텔라(개당 4.75달러)도 선보였다.

떡집에서도 젊은 세대의 발길이 잦아졌다. 떡집 관계자들에 따르면 젊은 손님층 비율과 타인종 고객 비율이 작년보다 10% 늘었다. 떡집에서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떡은 시루당의 백설기, 찹쌀떡과 서울떡집의 바람떡, 깨송편, 경단 그리고 지화자떡집의 무지개떡, 약식, 찰떡 등이 있다. 모든 떡은 10달러

미만에 구매할 수 있다.

한남체인 LA점은 작년보다 전통 간식의 매출이 15~20% 올랐다. 약과 도넛, 밤양갱·팥양갱, 곶감은 한 박스에 15달러 미만이며 호박엿, 가락엿, 땅콩엿, 쌀과자, 빵튀기, 강냉이, 맛동산, 소라 과자는 4달러 미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SNS를 보고 사진을 들고 와서 약과를 찾는 타인종 고객도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 한남체인의 설명이다. 정하은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틱톡 떠도는 절세 방법 믿으면 낭패

“주택 임대해 사업체 명의로 렌트비 지불하면 세금 공제”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인기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는 각종 세금 관련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자칭 전문가들이 게재하는 각종 동영상은 보는 것이 즐겁기도 하지만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AB세법의 아담 브루어 세무 담당 변호사는 “틱톡은 위험할 정도로 사실과 다른 세금 관련 조언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비즈니스 세금 공제 및 세액 공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주택 임대 절세

소셜미디어에서 인기 있는 절세 조언 중 하나가 자기 집을 임대해 사업체라는 것이다. 실제로 연간 최대 14일간 집을 임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자칫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집을 임대한 후 사업체 명의로 렌트비를 지불한 비용을 공제하라고 조언하는데 ‘통상적이고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경우 감사를 받고 세금과 벌금, 이자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직원고용유지세액공제(ERC)

팬데믹 기간 중 부분 또는 전면 폐업한 비즈니스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ERC가 사기꾼들의 타깃이 되면서 다수의 케이스에서 자격이 없는 데도 세액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루어 변호사는 “많은 업체가 소셜 미디어에서 본 동영상을 근거로 ERC를 신청했는데 IRS가 감사에 나서 무자격임에도 자금을 받은 납세자들을 상대로 자금 환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IRS는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ERC-VDP)을 통해 감사나 벌금, 이자 부과 없이 납세자가 지원 자금의 80%를 반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세법 179조

국세청(IRS) 세법 179조를 근거로 보트, 고급 차량 등 구매 후 고액 자산 비용 공제 방법을 조언하는 동영상들이 많다. IRS에 따르면 세법 179조는 사업 납세자가 특정 자산을 처음 사용할 때 그 자산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세액 부담을 완화해 준다.

하지만 동영상 조언처럼 간단하지 않다. 영블러드 그룹의 수석 세무 고문인 조수아 영블러드는 “모두가 간과하는 부분은 지출이 평범하고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인플루언서라는 이유로 15만 달러 전후의 벤츠 G바겐을 구매해 타고 다니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역 또는 사업 비용에 관한 세법 162조에 적용되지 않음에도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해 항상 비용을 집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드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비용만 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녀 고용

자녀를 고용해 세금 공제와 저축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사업 비용이 ‘통상적이고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예로 6세와 8세 자녀가 ‘통상적이고 필요한’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돈을 받고 있다면 부모가 감사를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삼성에 60억 달러 이상 보조금”

미국정부 지원 인텔 이어 2위 TSMC보다 10억불 더 받을듯

연방 정부가 삼성전자에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1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대로 지급된다면 삼성전자는 인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애리조나 인텔 공장을 찾아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조금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방 정부는 2022년 반도체법을 제정하면서 390억 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포함해 대출 지원 등 간접 보조금까지 527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보조금이 확정된 곳은 미국의 글로벌FOUNDRI(15억 달러)와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1억6200만 달러), 미군 전투기용 반도체를 만드는 영국의 BAE시스템즈(3500만 달러) 등 3곳이다.

반도체 업계에선 투자 규모가 큰 삼성전자와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가 전체 보조금의 40% 이상을 받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짓고 있고, 인텔은 오하이오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는 등 미국에서만 반도체 제조에 435억 달러를 쏟아 부을 계획이다. TSMC는 400억 달러를 들여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 2개를 짓고 있다.

연방 정부는 우선 인텔부터 챙기고 있다. 직접 보조금 35억 달러와 대출 등을 포함해 총 100억 달러 이상을 인텔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TSMC도 50억 달러 이상을 보조금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60억 달러를 받는다면 TSMC보다 10억 달러 가량 더 많이 받는 셈이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이들 기업은 최근 치열한 물밑 경쟁을 하고 있다.

이희권 기자

마켓 화제 2제



10개 이하만 셀프계산대 이용

대형 유통업체 타깃이 매장 내 도난 증가로 셀프계산대 이용을 제한한다.

15일 머니와치에 따르면, 타깃은 지난 17일부터 상품을 10개 이하로 구입한 고객만 셀프계산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전 매장으로 확대했다.

10개 넘게 상품을 살 경우엔 직원이 있는 계산대로 가야 한다. 다만, 타깃은 계산대 직원 수를 늘려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품질 토트백 8~9월 재입고

트레이더조전 매장에서 동나고 오픈마켓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던 미니 캔버스 토트백이 늦여름에 재입고 될 전망이다. 14일 CNBC에 따르면, 이달 초 출시된 토트백이 8월 말에서 9월 초에 다시 입고돼 판매된다.

출시 7일 만에 토트백이 동나면서 최근 이베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거래 플랫폼에서 한 개에 약 20달러 또는 4세트에 최대 999달러에 달하는 비싼 가격에 재판매되기도 했다.

정하은 기자

골프공만 한 블루베리 기네스 세계기록 수립

호주의 한 농장에서 재배한 블루베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블루베리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다.

15일 호주 농산물 기업 코스타 그룹에 따르면 이번에 세계 기록에 등재된 블루베리는 너비 3.931cm(약 1.548인치)로 골프공만 하며, 무게는 20.4g(약 0.720온스)로 보통 블루베리의 10배에 이른다.

이전 세계 기록은 호주에서 재배된 16.2g(약 0.571온스)짜리였다. 해당 블루베리는 코스타가 새로 개발해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이터나(Eterna) 품종으로, 큰 크기와 아삭한 식감, 긴

저장 기간이 장점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브래드 호킹 수석 원에서는 “이터나 품종은 풍미가 정말 훌륭하다”며 “열매를 크게 만들면서도 품질이나 맛에는 전혀 타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큰 크기 탓에 제빵을 하거나 시리얼에 넣기보다 간식으로 먹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회사는 예상했다.

호킹은 BBC 방송에 “기록을 경신한 열매가 유난히 컸지만, 그날 세계 기록을 깰 수 있는 열매가 20개 이상 있었다”며 이 열매가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 커질 가능성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블루베리. [코스타 그룹 제공]

도 있다”며 “상업화까지 약 10년의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가디언에 밝혔다. 농장에선 기네스북에 등재된 블루베리 열매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며, 레진 주물에 넣어 전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임성빈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절인 마이클 장

맞춤형 자산의 절인 마이클 장

주책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세계 곳곳에서 전하는 한 표 희망찬 대한민국 미래의 시작

Each vote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the beginning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filled with hope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The 22nd Overseas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선거정보 등 확인 ok.nec.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and Overseas Koreans Agency (oka.go.kr).

주미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 투표소 및 운영기간

VA투표소(코리안커뮤니티센터)
6601 Little River Turnpike, Alexandria, VA 22312
2024. 3. 27.(수) ~ 4. 1.(월), 6일간

MD투표소(메릴랜드한인회 사무실)
9256 Bendix Rd #206, Columbia, MD 21045
2024. 3. 29.(금) ~ 3. 31.(일), 3일간

✓ 투표시간:
매일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 투표소 준비물: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있는 한국정부 또는 미국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도 지참 필수 (비자, 영주권증명서, 아메리칸 사모아 거주증 중 하나)

✓ 셔틀버스 운행

○ 2024. 3. 30.(토) ~ 3. 31.(일) 2일간
○ East Falls Church역 KISS & RIDE
↔ VA투표소 간
오전 8시~오후 4시 매시 정각
지하철역 출발 (오후 12시 제외)
오전 8시30분~오후 4시30분
매시 30분 투표소 출발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

소셜미디어에서 찰스 3세(사진) 영국 국왕이 서거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는 소동이 일어나 외국 주재 영국 대사관들이 진화에 나섰다.

18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과 엑스(X·옛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에는 찰스 3세가 서거했다는 주장을 담은 정체불명의 메시지가 퍼졌다. 일부 게시물은 “국왕이 어제 오후 예기치 않게 세상을 떠났다”는 글에 버킹엄궁 로고와 3월 18일 날짜를 달아 마치 공식 발표문인 것처럼 꾸민 이미지를 첨부했다.

버킹엄궁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외국 주재 공관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주재 영국 대사관은 엑스와 페이스북 계정에 “찰스 3세의 죽음에 관한 뉴스는 가짜”라는 글과 이미지를 게시했다.

아제르바이잔 주재 영국 대사관도 소셜미디어 계정들에 동일한 게시물을 올렸다. 러시아어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채널을 통해 이런 가짜뉴스가 퍼진 점을 고려한 대응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영문판에서 버킹엄궁이 타스에 “국왕이 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앞서 영국 왕실은 지난달 5일 찰스 3세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 중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찰스 3세는 치료를 받으면서 대외 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공무는 계속 수행해 왔다. 버킹엄궁도 찰스 3세가 업무 중인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꾸준히 공개해 왔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찰스 3세,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복부 수술을 받은 만매리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의 위중설 등 미확인 소문이 계속 떠돌고 있다.

왕세자빈은 지난 10일 세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 위중설을 불식시키려 했으나 사진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왕세자빈이 사진 ‘편집’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역효과를 낳았다. 영국 타블로이드지 더선은 지난 17일 왕세자빈이 윌리엄 왕세자와 함께 거처인 윈저 애들레이드 코티지 인근에 있는 농장 가게를 방문했다고 목격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바이든 · 트럼프 ‘박빙 대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일 국정연설 이후 각종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박빙 구도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연설 이전의 근래 대부분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던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 이후 일부 조사에서 오차범위내 우위를 보이며 상승세를 타는 흐름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7~13일 실시된 로이터-업소스 조사(3천356명 대상·오차범위 ±1.8%p)에서 39%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38%)에 1% 포인트 앞섰다.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한 국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철저히 각을 세우며 전보 지지층 결집에 본격 나선 점과, 당시 1시간 이상의 연설을 활기차게 소화해내며 고령 논란을 다소 누그러뜨린 점 등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되고 있는 것일 수 있어 보인다.

다만 더힐이 소개한 바이든 대통령



올해 11월 5일 치르는 미국 대선에서 4년 만의 재대결이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오른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연합뉴스]

국정연설 이후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인 조사가 아직은 ‘바이든 우위’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10일 모닝컨설팅가 6천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1%p)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3%)에 1% 포인트 우위를 보였다. 야후뉴스-유거브가 992명을 대상으로 8~11일 실시

한 조사(오차범위 ±2.8%p)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3%로 바이든 대통령(41%)을 2% 포인트 앞섰다.

또 10~12일 이코노미스트-유거브 조사(1천365명 대상·오차범위 ±3.5%p)에서도 트럼프 44%-바이든 42%로 나타났고, 8~10일 해리스-포브스(2천17명 대상·오차범위 ±2.2%p)에서도 트럼프가 52%로 바이든(48%)에 앞섰다.

트럼프측 “4억5천400만불대 공탁금 마련 불가능” 호소

자산 부풀리기 의혹 사건 항소하려면 25일까지 말아야

부동산 갑부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 측이 자산 부풀리기 의혹 민사재판 항소심 진행을 위해 6천억원대에 달하는 재판 공탁금을 전액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최소 4억5천400만달러에 달하는 항소심 공탁금 전액을 마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탁금 마련을 위해 중개업체 4곳을 통해 보증회사 30곳과 접촉하고 세계 최대 보험사 중 한 곳과 오랜 시간을 협의했지만 결국 극복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는 게 트럼프 측 변호인의 설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임스 레티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자산 부풀리기 의혹 민사재판 1심에서 지난달 패소함에 따라 항소심 진행을 위해 4억5천400만달러의 자금을 공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결정에 항소하려면 이달 25일까지 공탁금을 맡겨야 한다.

트럼프 측은 앞서 4억5천400만달러의 벌금형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4분의 1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인 1억 달러로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반면 원고인 레티샤 검찰총장 측은 “피고 측의 부동산이나 다른 비(非)유동 자산의 가치가 항소심 진행 기간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다”며 공탁금 전액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패소, 항소심 진행을 위해서도 1천억원대 공탁금을 법원에 맡긴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슈퍼팩(Super PAC) ‘마가’에 몰려드는 정치후원금 대부분을 소송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지지자들의 자발적 벌금 모금 운동도 이어지고 있지만 엄청난 소송 비용 탓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입는 재정적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가자지구 병원 공습에 오열하는 모녀 이스라엘군이 1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을 또 급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작전은 하마스 고위 테러리스트들이(알시파)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첩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자로 격납용기서 핵연료 잔해 추정 물체 확인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냉각장치 고장으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원자로 격납용기 내부에서 핵연료 잔해(데브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2~3월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용기 내부를 소형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이날 공개했다.

촬영된 사진을 보면 원자로를 지지하는 원통형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 ‘페디스탈’ 내에서 제어봉 수납 장치 일부가 떨어져 있으며 그 상부에 굳어 있는 고드름이나 덩어리 모양의 물체가

찍혔다.

도쿄전력은 이 물체가 사고로 녹아내린 데브리인지 확인할 계획이다. 핵연료 데브리는 방사선량이 매우 높은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다.

현지방송 NHK는 “1호기에서는 지난해 격납용기 바닥에 고인 물속을 로봇으로 조사했을 때 바닥 부분에 데브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리로 보이는 대형 퇴적물이 확인된 바 있지만 물 위에서 데브리를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찍힌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도쿄전력은 그동안 페디스탈 내 수중 조사에서는 내벽의 하부에서 손상을 발견했지만 이번에 드론이 촬영한 범위의 내벽에서는 심한 손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데브리 양은 1~3호기에서 총 880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석 5조 통합보험



MetLife, John Hancock, Genworth Financial, Transamerica, Athene, Allianz, Prudential, Pacific Life, Zurich, Accordia Life, Columbus Life Insurance Company, Nationwide, Lincoln Financial Group, AIG, MassMutual, Aetna, National Western Life, LSJ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장기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주택/비즈니스 용자
- 오바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Hair **Z**one

20주년 기념 스페셜!!

20주년 특가 이벤트 !!

- Mens Hair Cut
- Seniors (Up to 65)
- Kids (Under 15)
- Military

\$19,99

Jacky, Ellen 제외



Body Massage **\$49,99** (애난데일점)



Ellen

Business Hours

TUE - SAT 10AM - 6PM
WED, SUN CLOSED

Burke

202-580-9398

8985 Hersand Dr
Burke, VA 22015



Jacky

Business Hours

MON - SAT 9AM - 7PM
SUN 12PM - 5PM

Annandale

703-750-1020

6920 M Bradlick Shopping Center
Annandale, VA 22003

뉴욕·한국·일본에서 30년 경력 스타일 리스트

바버 or 미용사 / 바디 마사지사
풀 타임 / 파트 타임 구함

Hair Zone 예약 App Download



Ap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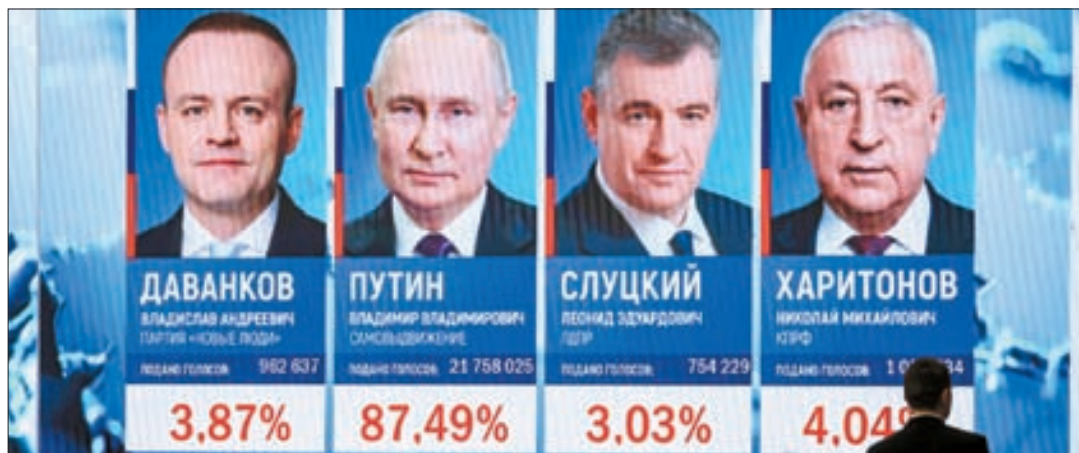


Android

Hair **Z**one

5선 푸틴, 서방 향해 “러·나토 충돌 땀 3차대전” 위협

87.3%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
스탈린 29년 임기 넘어설 예정
나발니 이름 첫 언급 “슬픈 일”
서방 언론 “우크라이나 격화될 우려”



1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무려 87.28%라는 소련 붕괴 이후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5선을 확정했다. 지난달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올리아 나발니야는 베를린 주재 러시아대사관에서 투표한 후 “투표용지에 남편 이름을 적었다”고 말했다(왼쪽 사진). [EPA=연합뉴스]

87.28%.
1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71)이 소련 붕괴 후 러시아 역사상 최고 득표율로 손쉽게 5선을 확정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대선에서 자신이 세운 최고 득표율 76.7%를 10% 포인트 이상 뛰어넘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새 영토’라고 부르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도네츠크 95.23%, 루한스크 94.12%, 자포리자 92.83%, 헤르손 88.12% 등 90% 안팎의 지지를 받았다.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다른 3명의 후보는 3~4%대의 득표율에 머물렀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대선 승리로 2030년까지 집권하게 돼 이오시프 스탈린 공산당 서기장의 ‘29년 독재’를 넘어설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17일 밤 승리가 확정되자 선거운동본부에서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우리 전사들에게 감사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을 언급했다. 러시아 국민들

향해선 “우리는 모두 하나의 팀”이라며 “러시아는 더 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을 향해선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의 직접적인 충돌은 세계 3차대전에서 한 걸음 떨어진 것을 의미할 것”이라며 “그 누구도 이 시나리오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대선 승리로 자신감을 얻은 듯 지난

달 16일 옥중 의문사한 최대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해서도 처음 언급했다. 그는 이전까지 “그 사람” “블로그”라고 불렀던 나발니의 이름으로 “나발니씨”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뒤 “그는 세상을 떠났다. 이것은 항상 슬픈 일이다”라고 추모하기도 했다.
권위주의적인 통치 스타일로 독재자를 뜻하는 ‘스트롱맨’ 평가가 따라다니는 푸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저항을 받았다. 선거 첫날인 15일에는 곳곳에서 투표함에 녹색 액체를 쏟거나 투표소 방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접경지 침투 시도도 이어졌다.
또 야권 인사들은 후보 등록부터 가로막혔고,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없는 투명한 투표함이 동원됐다. 마지막 날인 17일 정오에는 나발니 지지자들이 주도한 ‘푸틴에 맞서는 정오(Noon against Putin)’ 침묵시위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열렸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시위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투표를 촉구한 것은 칭찬한다”고 말했다.
서방 언론들은 푸틴 대통령이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CNN은 “이렇다 할 반대세력 없

이 단계별로 관리된 선거를 통해 1인 지배를 연장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선 압승으로 대담해진 푸틴이 새로 병력 동원에 나서고 내부 반대 의견 탄압을 강화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채텀하우스의 존 로프 러시아·유라시아 프로그램 연구원은 “많은 러시아인은 푸틴이 그들의 미래를 빼앗았다고 본다”면서 “푸틴이 파고 러시아가 빠진 구덩이의 모습이 앞으로 5~10년 사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수 백일현 기자

WFP “가자지구 어린이 영양실조, 굶주려 사망도”

(유엔세계식량계획)

칼스카우 사무차장이 전한 상황
“난민들, 동물의 먹이까지 먹어
식량 투하 역부족, 육로 더 열어야”



14일 한국을 방문한 스카우 WFP 사무차장이 중앙일보와 인터뷰했다. 김종호 기자

구호 식량이 전달된 건 처음이다.
가자지구 북부의 경우 그간 이스라엘의 통제 등으로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구호 트럭에 몰려든 민간인 11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고, 지난 14일에도 비슷한 구호 트럭 참사가 재발해 최소 20명이 숨졌다.
-미국은 가자지구 해안에 구호품 전달을 위한 항구를 신설하기 시작했다.
“항구 건설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공중 투하도 상징적이고, 실제 전달되는 양은 너무 적다.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육로를 통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한편 역시 만장일치로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 지원과 관련해 스카우 차장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닫아걸고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모두 내보낸 뒤 아직 복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WFP는 올해 대북 지원 예산을 2억4771만 달러(전년 대비 3272

“트럭 여러 대로 계속 구호품을 들여보내지 않는 이상 가자 지구 북부에는 기근이 닥치고 말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사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칼스카우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차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1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후 “가자 지구의 상황이 전례 없는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직접 가자지구를 방문해 민간인들에게 닥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을 목격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자지구를 방문했는데 실상이 어떤가.
“재앙 그 자체다. 북부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 굶주린 난민들이 동물의 먹이까지, 구할 수 있는 건 모두 먹는다. 음식이 없는데도 요리하는 시늉을 하

며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도 있다. 어린이 다섯 명에 한 명꼴로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린다. 굶주려 사망하는 사례도 속출한다.”
스카우 사무차장은 “기근이 코앞에 있다”며 간절한 어조로 가자 지구의 참상을 토로했다. 가자 지구 북부는 현재 유엔의 식량 위기 5단계 중 가장 심각한 ‘재앙-기근’에 접어들었다. WFP는 12일 가자지구 북부의 최대 도시 가자 시티에 약 3주 만에 트럭 6대를 통해 구호품을 전달했다. 전쟁 이후 이스라엘 통행로를 통해 가자지구 북부로 직접

유럽 첫 흑인 지도자... 계싱, 웨일스 자치정부 새 수반

(영국)

식민지였던 잠비아 출신, 2세 때 이주
영국 4개정부 수장에 백인 남성 없어

영국 웨일스 자치정부 수반에 본 계싱(50·사진) 웨일스 경제부 장관이 선출됐다. 유럽 역사상 첫 흑인 지도자다.
1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웨일스 제1당인 노동당 대표 선출 대회에서 본 계싱 장관은 51.7%의 득표율로 제레미 마일스 교육부 장관(48.3%)을 누르고 승리했다. 계싱 장관은 20일 웨일스의 새로운 자치수반으로 취임한다.
그가 취임하면 영국의 주요 4개 정부 수장이 모두 백인 남성이 아니라는 기록도 세워진다.
현재 영국 전체를 대표하는 리시 수백 총리는 인

도계이며,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파키스탄계인 훌자 유사프 수반이 이끌고 있다. 북아일랜드 자치정부는 여성인 미셸 오닐이 수반을 맡고 있다. 2002년까지만 해도 영국 내각에는 비백인이 전혀 없었다.
계싱 장관은 승리 직후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긴다”며 “우리가 함께 쓰는 역사”라고 자축했다. 그는 영국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의 잠비아 출신이다. 잠비아인 어머니와 웨일스 남부 출신 수의사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2세 때 웨일스로 이주했다. 법조계에서 일하던 그는 지난해 2011년 웨일스 의회에 입성하며 정치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임주리 기자



만 달러 증액)로 책정했지만 실제 지원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서방과 국제기구에도 외교의 문을 열려는 조짐을 보인다.
“우리를 다시 초청해준다면 언제든지

대북 지원 사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WFP는 가장 마지막 순간에 북한을 떠났는데, 이제는 가장 먼저 북한으로 복귀하는 기관이 되고 싶다.”
박현주 기자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 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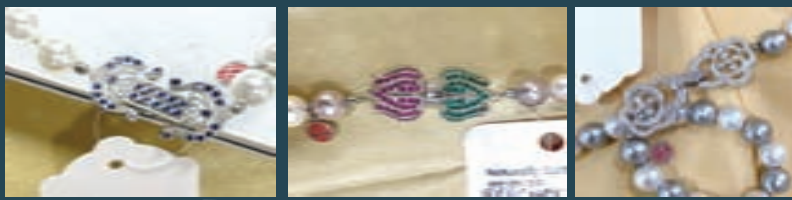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남양진주보다 더 매혹적인 일본산 인공핵진주!!

핵진주란, 대왕조개로 만든 핵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진주 에센스를 여러번 코팅한 인공 진주로서, 최고급 남양 진주의 광택을 지녔고, 가격이 천연 양식 진주에 비해 월등히 합리적입니다. 겐코의 일본산 인공핵진주 제품들을 만나보세요.



진주 컬러에 맞춘 다양한 디자인의 세계최고수준 한국세공 윗장식을고배 주얼그를 에서 만나보세요.

진주, 칼라스톤 세트류가 "와우~ 물반 고기반이네!"

Rings Heaven 애난데일과 엘리콧시티에서 펼쳐는 보석쇼

“무조건판다!” “무조건반값!”

새봄맞이 압도적 진주, 칼라스톤 1200세트 전격 출시!!

천연양식진주 / 인공프리미엄 핵진주 / 홍산호 / 각종 칼라스톤 /



MOISSAN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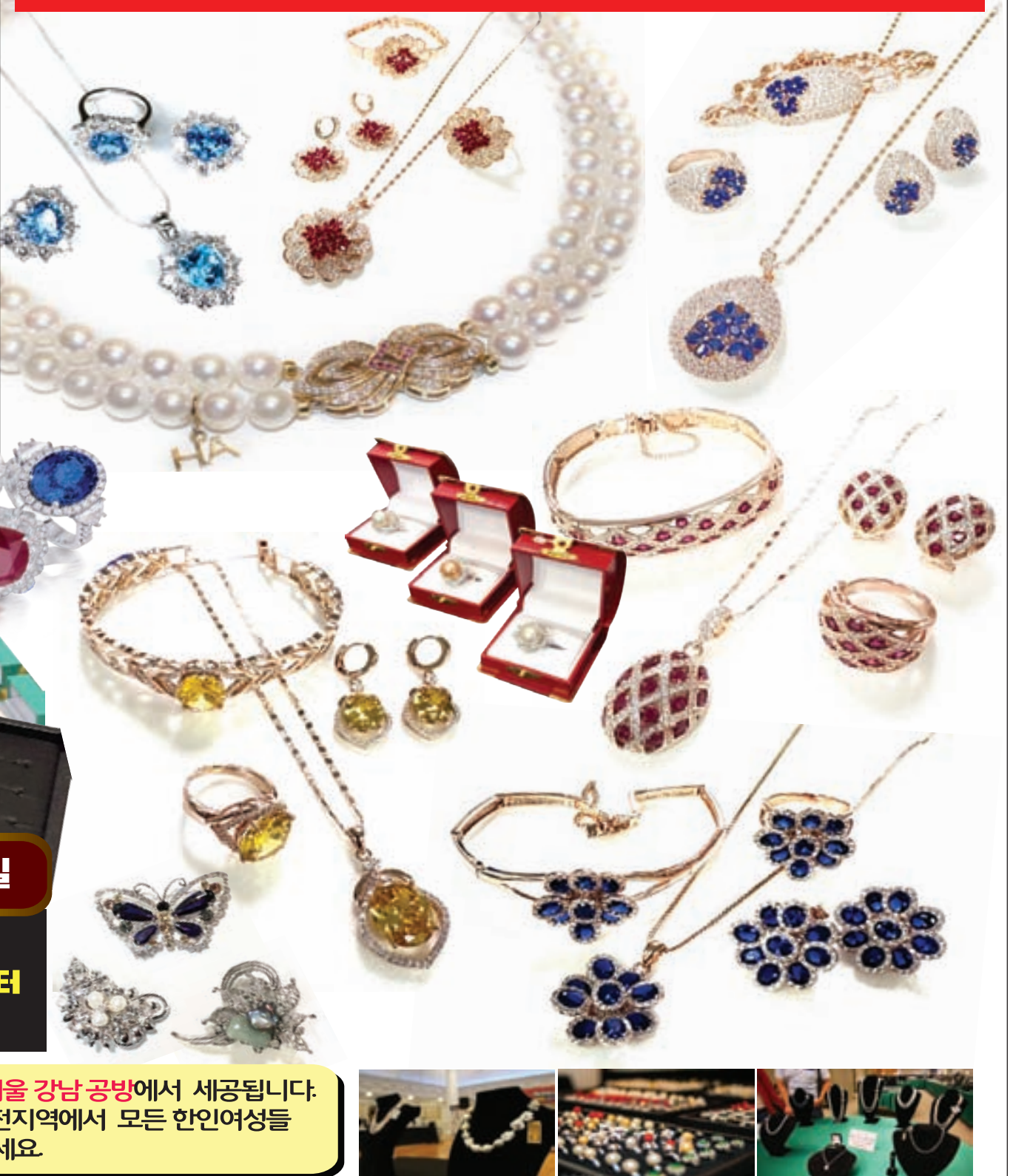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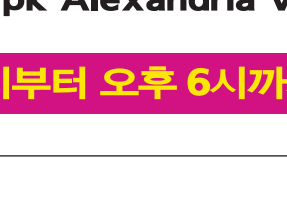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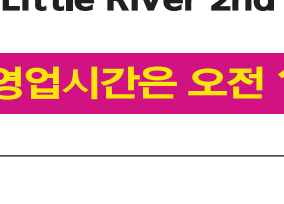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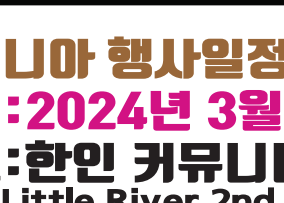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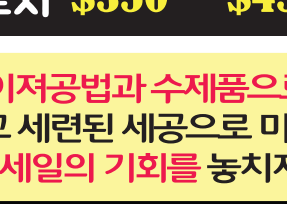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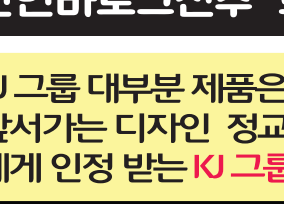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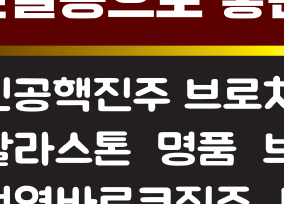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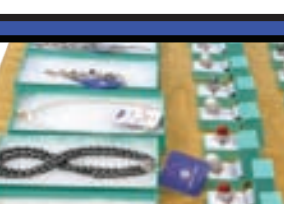
대형사이즈 모이사나이트 3캐럿 및 5캐럿

"유일하게 다이아몬드를 능가하는 보석 모이사나이트"

모이사나이트는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경도, 보타나는 광택, 분산율을 가지고 있으며 영란의 반짝이는 영광함을 잃지 않는 장인된 보석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 가격보다 최대 10분 1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하여, 스마트하고 합리적인 쇼핑을 선호하는 신여성 고객님들께서 찾으시는 보석입니다.



반지천국에서 아쉽게 준비한 모이사나이트 특가전!
자긱자긱 볼경기! 모이사나이트반지로 기분 UP!



선물용으로 좋은 브로치 특가 세일

인공핵진주 브로치 무조건 \$100부터
칼라스톤 명품 브로치 무조건 \$350부터
천연바로크진주 브로치 \$350 ~ \$450

KJ 그룹 대부분 제품은 레이저공법과 수제품으로 서울 강남 공방에서 세공됩니다. 앞서가는 디자인 정교하고 세련된 세공으로 미주 전지역에서 모든 한인여성들 에게 인정 받는 KJ 그룹 대세일의 기회를 놓치지마세요.



버지니아 행사일정
일시: 2024년 3월 20일(수)-22일(금), 단 3일간
장소: 한인 커뮤니티 센터 2층 특설매장
6601 Little River 2nd fl Tpk Alexandria VA 22312

볼티모아 행사일정
일시: 2024년 3월 23일(토)-24일(일), 단 2일간
장소: JJ 골프 숍 특설매장 (서울폴대지 음식점 옆)
10045 Baltimore National Pike A12 Ellicott City MD 21042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합니다.

GIA SOPHIA Y KANG GIA 진주모의 감정사 미국 GIA 진주분석 감정사 매니저가 고객님의 합리적인 쇼핑을 도와드립니다. 각종 신용카드 환영합니다. KOBEL JEWEL GROUP HELENAIKO Rings Heaven GEMKO

더중앙플러스 회고록 연재
'이문열, 시대를 쓰다'

▶ 1면 '이문열 인터뷰'에서 이어집니다.

이문열 작가가 문학과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회고록 '이문열, 시대를 쓰다'는 25일부터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를 통해 주 1회, 30주 가량 연재된다. 연재 전 인터뷰에서 그는 “글 한 줄 쓰지 못한 지 3년째 됐다”면서 “지어내지 않은 진솔한 인생 회고록을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인생 회고록인 동시에 그의 육성을 통해 듣는 시대의 회고록이기도 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금까지 수없이 받은 질문일 텐데, 어떻게 작가가 됐나.
“등단 전 젊었을 때는 가능하면 작가가 되는 일을 피하고 싶었다. 성리학 전통이 뿌리 깊은 고향 문중에서는 작가는 그리 높게 쳐주지 않는다. 오래 살다 보니 생각도, 기억도 바뀌는 것 같은데, 결국 작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자발적이지 않은 원인이 있었다는 게 최종적인 느낌이다. 작가가 된 게 아니고 되어져 버린 것 같다. 되고 보니 꼭 거부할 일은 아니었다. 원래 내가 할 일인데 있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다.”

-작가가 되어져 버리게 한 요인은.
“말을 운용하고 글을 쓰려면 언어 훈련이 필요한데, 내 경우 정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국민학교(초등학교)는 졸업했지만 중·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검정고시로 마쳤고, 대학교(서울

“다수가 항상 선은 아니다
획일적으로 개인 재단 안돼”



대한다고 느꼈는지 무척 속이 상했던 모양이다. 당시 DJ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비판한 내 조 선일보 칼럼(‘신문 없는 정부 원하냐’)에 반발해 내 책을 반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길래 동아일보에 후속 칼럼(‘홍위병을 떠올리며’)을 썼던 게 발단인데, 그런 이데올로기 문제보다 지역 색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전라도 출신 아니냐고 캐묻더라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가 퍼졌다.’

-세무조사 비판 칼럼은 왜 쓰게 됐나.
“어느 날 TV를 켜니 난리라고 난 것처럼 국제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를 방송 3사가 약속이라도 한 듯 생중계하고 있었다. 언론사도 당연히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몰아가는 방식이 나쁘다고 봤다.”

-2004년 한나라당 총선 공천 심사에도 참여했는데.
“관상기도 아니고, 공천 희망자들의 정치 경력이나 식견을 따지는 역할을 했다. 원래 할 일이 아닌데 당시 집안 손자뻘인 이재오 의원이 부추겨서 한 일이다.”

-공교롭게 요즘 공천 철이다.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돌아가는 메커니즘도 모르겠다.”

-강경 보수 이미지가 강하다.
“세상 진행 원리는, 아무것도 없던 데서 새로운 게 생겨나지 않는다. 있던 걸 개량하고, 써오던 건 세월 지나 낡는다. 지나간 걸 전부 죄악시키는 진보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애꿎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서로 따귀를 때리게 하면 감정이 생겨나는 것처럼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다가 내

아무것도 없던 데선 새것 안나
있던 게 개량되고 지나면 낡아져
지나간 것을 전부 죄악시키는
진보 주장엔 동의하기 어려워

정규학교 제대로 다니지 못해
그 빈 시간들 메워준 게 ‘독서’
대학 입학 무렵엔 1만권쯤 읽어
작가 된 게 아니라 되어져 버려

대 국어교육과)도 세 학기만 다녔으니 학문적으로는 붕 떠버린 혼처럼 돼버렸다. 그 빈 시간을 메워준 게 독서였다. 다행히 이래저래 책이 흔한 환경에서 자랐다. 처음에는 별 목적 없이 읽었는데 고등학교 무렵부터 내 판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당히 정선해서 읽었던 것 같다. 대학 입학할 무렵에는 1만 권가량 읽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지냈던 거로 알고 있다.
“밀양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 석 달 정도였다. 어머니가 권사로 있는 교회에 딸린 고아원이었다. 한국전쟁 직후 우리처럼 아버지가 월북한 불온한 가족에게 교회는 신기한 부처 같은 존재였다. 좌익에게 염혹하던 시절 아닌가. 수사관들이 따라붙었다가도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가버렸다. 당시 어머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교회 밖에 없다’고 늘 말씀하셨다. 그래서 열심히 다녔다.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 1등 한 적도 있다.”

-역설적으로 출세작 『사람의 아들』은 기독교 해체 소설 아닌가.
“평생 성경을 아는 척하며 살았는데, 뒤늦게 군대 가기 전 구약을 꼼꼼히 읽었다. 참 대단한 이야기다 싶더라. 당시엔 소설을 알 때라서 초고를 썼는데, 평생 한 번 쓰는 소설이라고 생각했

었다. 마음속에 남은 약간의 믿음과 자라면서 생긴 기독교에 대한 회의가 충돌했다. 기독교에 대한 반동의 뜻은 있다. 헬레니즘을 반동의 구실로 삼아 싸워보려 한 것 같다.”

-무슨 뜻인가.
“기독교의 바탕인 헤브라이즘(유대교 전통)은 헬레니즘(고대 그리스·로마 문화)이라는 거대한 문명체계를 뚫고 성장했다. 나중에 기독교가 변형하자 헬레니즘을 억압했다. 그에 대한 역해방이 르네상스였다. 그런 역사적 관점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려 했다는 뜻이다.”

-작가로서 보람은 어떤 건가.
“속되게 얘기하면 책이 많이 팔려 경제적 도움 되고, 밖에 나가면 아무개라고 알아보는 상태 아니겠나(웃음). ‘내 방식으로 어떤 위대한 영혼의 이야기를 잘 써내면 굉장이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나쁘지 않은 일거리를 찾았다는 기분이었다.”

-큰 사랑을 받았지만, 비난도 많이 받

았다. 과도하게 비판받았다고 생각하나.
“꼭 그렇지는 않다. 내 작품이나 칼럼을 읽고 화내거나 공격적이면 대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의도 없는 글이 있겠나.”

-논란이 예상되는 글을 굳이 발표하는 건가.
“승산 없고 결말 안 나고 요란스럽기만 한 싸움을 왜 했나 싶다. 글을 쓰다 보면 완벽하게 못 쓰고 슬쩍 넘어가는 대목이 생기는데 그걸 참 기광스럽게 찾아내서 욱하면 기분 나쁘지.”

-페미니즘 진영과도 불편했다.
“1997년에 낸 소설 『선택』에 반발해 ‘이프(if)’라는 페미니즘 잡지까지 생겼다.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악의적으로 문제 삼았다고 생각한다.”

-2001년에는 이른바 ‘책 장례식’까지 벌어졌다.
“지금도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부산에서 사진관을 운영한다는 주동자를 그 일 엮기 며칠 전에 만났는데, 내가 시답지 않게

감정이 적양된 부분도 있다. 하지만 나는 ‘보수의 가치를 잊지 말자’는 주장을 했을 뿐이다. 그걸 두고 나를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수를 지나치게 옹호한다’고 한다.”

-다수나 집단에 대한 생애적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
“어떤 일에 있어 다수가 중요한 기준은 되지 만 항상 선은 아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고(그게) 반드시 옳다는 보장도 없다. 나라는 존재는 고정돼 굳어진 게 아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획일적으로 개인을 재단하려 하면 짜증이 난다.”

-결국 자유주의가 강조돼야겠다.
“서양뿐 아니라 동양에도 자유주의 전통이 있다. 과거에는 자유주의가 제도적으로 억압됐다면 요즘은 감춰지고 희석돼 자기가 억압받는다고 느끼는 경우조차 많지 않은 것 같다. 가령 지역감정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자기검열 비슷하게 느끼는 것도 일종의 억압이라고 본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지난해 호되게 앓고 난 뒤로는 글을 쓸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글 한 줄 안 쓴 지 3년 됐다. 이번 중앙일보 연재가 그 대신일 수도 있겠는데, 지어 내지 않고 진솔한 인생 회고록을 쓰고 싶다.”

신준봉 논설위원



『사람의 아들』



『변경』

Advertisement for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Features a list of services including neck/shoulder pain, sports injuries, and stroke recovery.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Dr. Kim Woo-gi and the clinic's address in Chantilly, VA.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Kim Kyung-ah. Lists several properties for sale with prices ranging from \$670,000 to \$800,000. Includes a photo of the agen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er brokerage, FAIRFAX REALTY.

용산 “황상무 경질 생각없어” 김경율 “사퇴가 올바른 길”

(친한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총선을 23일 앞둔 18일 정면 충돌했다. ‘수사 회피’ 논란을 빚은 이종섭 주(駐)호주대사와 ‘인론 회피 테러’ 발언 논란에 휩싸인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거취 문제로 촉발된 당정 갈등이 당내 친윤 대 친한 대립으로 번졌다. 이날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자 ‘찐윤’ 이철규 의원은 공개적으로 “동지들이 소외됐다”고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가운데)이 18일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

용산·한동훈 커지는 파열음
대통령실 “이종섭 정당한 인사”
한 “즉각 귀국” 주장에 정면 반박

친윤 “비례, 호남 우선 원칙 안지켜”
국민의미래 “공천 절차 하자 없다”

순위	후보	순위	후보
1	최보운	19	이소희
2	박충권	20	남성욱
3	최수진	21	정혜민
4	진종오	22	김화진
5	강선영	23	이달희
6	김건	24	주기환(사퇴)
7	김소희	25	김민정
8	인요한	26	서보성
9	김민진	27	김미현
10	김위상	28	이석환
11	한지아	29	임보라
12	유용원	30	김인현
13	강세원	31	최연우
14	김장결	32	이승형
15	김예지	33	이윤정
16	안상훈	34	백종욱
17	이시우	35	김소양
18	박준태		

앞섰던 위기감이 재확인되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당 전체가 비상”이라며 “특히 경가·인선에서 정권심판론 비율이 높게 나온다”고 말했다. 비명횡사로 촉약되는 민주당의 공천 과동이 일단락되고 야권이 ‘윤석열 정부 심판’ 단일대오를 형성하자 “용산 리스크를 당이 계속 안고 갈 순 없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분출한 것이다.

이날 ‘이종섭 귀국, 황상무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는 한층 커졌다. 수도권 후보로 나선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공동선대위원장 3인방은 “이 대사 해임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안철수), “(황 수석) 본인이 알아서 정리해야 한다”(나경원)며 압박했다. 대표적 친한계 인사인 김경율 비대위원도 라디오에 나와 “황 수석은 공직자로서 자세가 돼 있지 않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사퇴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위성 정당 국민의미래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하자 이번엔 친윤계가 반격에 나섰다. 한동훈 비대위에 속한 김예지의 원과 한지아 이지

의과대학 부교수가 각각 당선권(20번 이내)인 15번·11번에 배치되고, 윤 대통령 측근으로 통하는 주기환 전 광주시 당위원장(24번) 등이 당선권 밖으로 밀려난 게 불씨였다. 주 후보는 곧바로 사퇴했다. ‘찐윤’ 이철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며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동지들이 소외된 데 대해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바로잡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두 번 배려하지 않는다는 당의 오랜 관례는 깨지고, 비대위원 2명이 비례대표에 포함됐다”며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 2명이 당선권에 포함된 상황에서 온갖 굵은일을 감당해 온 당직자들이 배려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은 더 더욱 크다”고도 했다.

‘한 비대위 출신’ 김예지·한지아 당선권 또 다른 친윤계 핵심 의원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원이 2명이나 비례대표에 포함된 건 한동훈 위원장의 사친(私薦)이라며 “아무리 위성 정당이어도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규정된 비례대표 공천 시 호남 우선 추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했다.

여권에선 지역구 공천 과정보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쌓여 온 친윤계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 해석이 나온다. 공천과 관련해 이른바 ‘윤심’을 당내 친한계가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것이다. 과거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에서 공천이 철회됐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이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것도 친윤 그룹 기류와 맥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한동훈 지도부는 친윤계의 반발을 일축했다.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지문을 통해

“국민의미래 당헌 규정과 전례 및 공관위 의결에 따라 (공천은) 절차상 하자 없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비례후보를) 바꿀 이유가 없다”며 “이철규 의원의 발언은 해당 행위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윤 대통령을 팔아 호가호위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같든 다른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민의미래가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는 35명이다. 비례 1번에는 여성 장애인 변호사인 최보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공천됐다. 유일준 공천관리위원장은 “정상인과 장애인 모두를 이해할 수 있고, 변호사로서도 훌륭하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이 영입한 인사 중 다수가 당선권인 20번 이내에 배치됐다. 탈북 공학도인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이 2번, 바이오 전문가인 최수진 한국공학대 특임교수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종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각각 3번과 4번을 받았다. ‘여성 최초 투스타(소장) 출신인 강선영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5번), 김진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6번) 등도 당선 안정권에 포함됐다. 용산 출신 중에선 안상훈 전 사회수석과 강세원 전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각각 16번과 13번을 받았다.

지난해 말 당 혁신위원장을 맡아 중진 희생(불출마)을 종용했던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은 8번에 배치됐다. 당 일각에선 “불출마 약속을 어기고 제 잇속만 챙겼다”(영남 중진의원)는 비판이 나왔다. 김위상(10번)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에 대한 폭력 전과(집행유예)와 공공횡령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 공관위 관계자는 “재판받은 내용이 2005년 이전 노동운동 중 발생한 것으로, 결국 사유로까지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세름·김기정·박태인 기자

친윤 주기환, 당선권 밖 배치에 사퇴
국민의힘이 이른바 ‘이종섭·황상무 리스크’에 목소리를 높인 건 총선을 목전에 두고 부상한 ‘수도권 위기론’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격전지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열세라는 여론조사가 속출하자 한동훈 비대위 출범 후 가라

양문석, 면접 때 “수박 발언 뭐가 문제냐”… 홍익표 “공관위원장 책임”

(공천)

양 후보 논란 계속, 민주당 내용 확산
개발들 “박용진 떨어뜨려야” 댓글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도덕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8일 SBS 라디오에서 “(양 후보에 대해) 공천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며 “특히 도덕성 문제에 대해 외부위원 여러분이 거의 최하점을 주고, 경선 자격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한 분이 많이 계셨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관위에 따르면 양 후보는 면접 당시 ‘수박(비명계 지칭) 발언을 지적받자 “내가 동물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식물 이야기를 한 건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고 한다. 양 후보는 지난해 안산갑 현역인 전해철 의원을 향해 “수박 척결”이라고 해 당직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홍 원내대표는 “논란 끝에 그냥 공관위 통과가 됐다. 이 부분은 임혁백 공관위원장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경선 패배 후 침묵하던 전해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양 후보의 발언은 빈도와 수위, 내용에서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발언에 분노와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날 양 후보에게 우회적으로 거취 표명을 요구한 김부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채널A 인터뷰에서 “당에 재검증을 요청했으니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양 후보에 대해 “지나쳤다. 사과해야 한다”면서도 “그이

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
18~19일 서울 강북을 경선(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박용진 의원)을 놓고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박 의원을 무조건 떨어뜨려야 한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성지원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상담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Regina Domingo
Esq.

Chris Shin
Esq.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정부 “2000명 증원 확고” ... 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제출”

〈서울대·연세대〉

윤 대통령, 의정 갈등 뒤 첫 병원행 의대 교수 만나 “후배 설득해 달라”

“모든 의제는 오픈돼 있다”는 정부 측 메시지가 18일 전해졌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대화의 여지가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기대 섞인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양측이 의과대학 증원 2000명이라는 핵심 의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정부가 증원 규모를 못 줄인다는 입장을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의제에 대해 저희는 오픈돼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어 “2000명 증원을 왜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의미”라며 “의료계에서 350명, 500명을 말하는데 왜 그런지 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한 달째를 맞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앞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나란히 길을 건너고 있다. [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차관은 장 수석 발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의료계

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다만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모든 논제를 대화할 수 있지만,

2000명 증원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2000명 증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진 격려차 이날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증원을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며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교수하지 마시고,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던 교수사회는 이날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 없이는 저희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며 “이번 사태로 진료에 차질이 빚어졌을 물론 불안한 마음으로 사태의 향방을 지켜보게 만든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

린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사직 예고와 관련해선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 온 교수직을 던지는 것인데 오죽하면 그러겠냐”라며 철 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25일 까지 교수들의 사직서를 받아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긴급 회의를 연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25일까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빅5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복귀하고 교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지 않게 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병원에 근무하는 젊은 의사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병원장들에게 요청했다. 조 장관은 19일에는 국립대 병원장들과 회동한다.

장주영·황수연·박태인 기자

군의관·공보의 250명 내주 초 의료현장 2차 투입

전공의 진료 이탈이 한 달째 이어지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까지 임박하자 정부가 추가적인 비상진료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군의관·공중보건조사(공보의)를 추가 투입하고, 대형병원 응급실 경증 환자의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

키는 안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154명의 군의관·공보의를 대형병원 20곳에 투입한 데 이어 다음 주 초에 25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 2차 투입에는 군의관을 100명 정도로 대폭 늘리기로 하고

국방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1차 지원 때는 공보의가 134명, 군의관이 20명이었다. 이 중 전문의는 62명이었고, 인턴·레지던트 수료자가 46명, 일반의사가 46명이었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의 대 줄임 후 전문의의 과정을 밟지 않은 일

반의사보다 전문의를 선호한다. 복지부는 2차 지원 인력에 전문의를 늘리기 위해, 전문의가 많은 군의관 차출자를 100명으로 늘려 잡았다. 명단이 확정되면 내주 초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권역응급센터(대형병원 44개 응급실)에 경증이나 비(非)응급 환자가 방문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진료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권역응급센터 환자의 50%가량이 이런 환자였는데, 전공의 진료 이탈 후 27%로 줄었다. 이를 더 줄이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환자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들고 상급 종합병원(3차)으로 직행하는 걸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윤 대통령 “AI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 국제연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환영사에서 “민주주의는 어느 한 나라나, 또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수호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급 회의 주제인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거론하며 “생활의 편익”과 ‘민주주의 위기’라는 디지털 기술의 양면적 현상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민주주의 진영의 역량 강화를 내세워 처음 개최한 행사다. 이 회의가 미국 외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앞선 두 차례 회

의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전 녹화 영상을 보내는 형식으로 참석했다. 장관급인 탕평(영어명 오드리 탕) 대만 디지털 담당 정부위원은 이날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공개된 사전 녹화 영상에서 “유사한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이 모여 AI와 신홍 기술을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권위주의자들과 악의적 행위자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보를 오염하고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 했지만, (대만) 정부와 국민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분열과 불화의 씨앗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이 대만 당국자를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을 결연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 측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며 “‘대만 독립’ 세력에게 ‘강단’을 제공하거나, 이목을 끄는 것을

중단하라”고 했다. 린 대변인은 전날 관영 신화사가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한 한국을 “미국의 줄기”라고 비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 질문에 “이데올로기로 선을 나눠 민주 문제를 도구화·무기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신화사는 전날 밤 게재한 칼럼에서 “한국의 일부 매체는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미국의 ‘줄기’(馬前卒)가 됐다고 여기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미 미국이 이른바 ‘미국식 민주’를 정치화·도구화·무기화하려는 본질, 가짜 민주라는 명목으로 분열과 대결을 선동하고,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간파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외국 정부를 비판할 때 애국주의 성향의 환구시보를 주로 활용해왔는데, 국가 대표 통신사인 신화사를 내세워 한국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최식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발 이상 발사했다. 지난달 14일 신행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의 도발 재개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44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

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남측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30km, 전북 군산의 주한 미 제8전투비행단까지는 약 350km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정영교·이근평·박현진 기자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계약은 한곳에서

2023 Return

A T X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김원근 변호사 유연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단열에 태양광 발전까지... 에너지 생산하는 건물 온다

자동차를 바꿀 때 전기차를 살지 한 번쯤 고민하게 된다. 정부는 석탄 발전소를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대체할지 검토한다.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수출할 때 관세를 물게 될까 걱정이다. 어느새 탄소 줄이기는 일상의 고민이 됐다.

이런 변화가 건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건축은 발전과 산업, 수송에 이어 탄소배출량이 4번째로 많은 분야다. 2018년 5210만 t을 2030년까지 3500만 t으로 32.8%나 줄이겠다는 건축 목표치가 나와 있다. 이미 그런 목표를 실현해나가는 건물이 하나둘 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다.



1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노원 이지하우스 전경. 아파트 3개 동을 포함,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으로 구성된 이 단지에는 121세대가 실제 거주하고 있다. 2017년 준공된 이지하우스는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분야에서 이정표 역할을 했다. 2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지구에 위치한 에너지엑스 DY빌딩 전경. 상업용 건물로는 처음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을 받은 건물로, 에너지 자립률이 121%에 이른다.



패시브 건축의 이정표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로 사용할 에너지를 다 충당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의미다. 지난 12일 둘러본 서울 노원구 하계동 '노원 이지하우스'는 이 분야에서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한 건축물이다. 이름도 에너지 제로(Energy Zero)의 영문 첫 글자를 따 지었다. 노원구 중계동 학원가에서 하계역으로 이어지는 한글비석로에 위치한 이지하우스는 무심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모르고 지나칠 만큼 평범한 아파트 단지다. 아파트 3개 동, 빌라 1개 동과 복층형 단독주택 3채로 구성된 주택단지인 121세대의 주민이 실제 거주한다.

이 곳은 2013년 정부가 발주한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실증단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출발했다. 이 과제를 이명주 명지대 교수팀과 서울시, 노원구, KCC 컨소시엄이 따냈다. 독일 유학 후 2003년 명지대에 부임한 이 교수는 건물 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독일은 이미 1990년대부터 단열, 고성능 창호, 공기 밀폐, 열전달 차단 등을 통해 에너지 소요량을 줄이는 패시브 설계가 도입됐다.

이 교수는 실증단지에서 일종의 실험 주택부터 만들었다. 이곳에서 패시브 기술에 필요한 온갖 자재의 성능을 실험하고, 지어진 뒤 주택의 상황을 재연해가며 설계와 시공을 수정해갔다. 이 교수는 "당시에 처음 도입하는 방식이어서 대부분의 부품과 자재를 주문생산하고 일부는 수입해 썼다"며 "개별 부품과 장비는 설계대로 효율을 내는데, 전체 시스템으로는 조화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겨 고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때 축적한 노하우가 국내 패시브 건축 시장 확대에 초석이 됐다.

패시브 설계의 기본은 단열. 일반 건축물은 벽 안쪽에 단열재를 넣고 내부 마감을 한다. 외부로 노출된 콘크리트 벽은 여름엔 구들장이 되고, 겨울엔 안쪽 열을 밖으로 내뿜는 에어컨 실외기가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이지하우스는 벽 바깥에 단열재를 붙이는 외단열을 채택했다. 블라인드를 창안쪽이 아닌 바깥에 붙인 것도 같은 이유다. 삼중 유리 창문을 달고, 단열 부위에 열이 세는 것을 막는 테이핑을 했다. 단열재가 보강된 현관문은 냉장고 문 만큼 두껍다. 외부로 돌출된 발코니와 본체 벽 연결 부위에서 단열이 끊기고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을 용접한 철근이 들어간 차단재를 썼다. 그야말로 '열셀 틈 없는' 시공만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74%가량 감소했다.

여기에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액티브 기술을 더했다. 건물 옥상과 벽에 1274개의 태양광 패널을 달아 전기를 생산한다. 지하에 160m 깊이로 48개의 구멍을 뚫고 파이프를 박아 물을 주입하면 사시사철 15℃를 유지하게 된다. 이 물을 히트 펌프로 데우거나 식혀 냉난방과 급탕용으로 쓴다. 물론 히트 펌프도 태양광 발전에서 얻은 전기로 돌린다. 이 교수는 "비용이 더 들지만 조금 신경 써 지으면 생각만큼 크게 늘지 않는다"며 "결국 발전과 관심의 차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팀은 완공 이후에도 7년 동안 현장에 상주하며 건물 유지와 데이터 수집·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상주하고 있는 이응신 교수는 "아무리 세심하게 설계를 했어도 실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방지하면 애써 만든 실증단지가 순식간에 일반 주택으로 전락하게 된

다"고 설명했다.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설계 효율을 달성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결과를 건축 전문잡지를 통해 발표했다. 2020년 분석치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28개월간 총 태양광 발전량은 97만kWh, 히트 펌프와 일반 전력 사용량은 77만kWh로 에너지 효율은 126%를 달성했다. 제로 에너지를 넘어 플러스 에너지 건물인 셈이다.

민간에도 확대되는 제로에너지 건축

노원 이지하우스가 한창 지어지고 있는 동안 국내 주택 분야 탄소절감 로드맵이 나왔다. 준공 무렵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도입됐다. 에너지 자립률(사용량 대비 자체 생산량 비율)이 20% 이상이고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을 갖춰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립률 20~40%면 5등급, 100% 이상은 1등급을 받는 식이다. 2020년 1000㎡ 이상 공공 건축물부터 인증이 의무화됐다. 인증 없이는 인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500㎡ 이상 공공건물과 30세대 이상 공공아파트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제 신축 공공임대 아파트는 최소 20% 이상 자체 생산 에너지를 써야 한다. 올해부터는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로 확대될 예정이었는데 당분간 연기됐다. 2030년부터는 공공, 민간부문 모두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신축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게 한다는 게 정부 로드맵이다.

현재까지 5241개 건물이 예비인증을 통과했고, 이 중 1057곳이 준공 후 실사를 거쳐 본 인증을 받았다. 자립률 20%만 넘기면 인증이 나오지만 100%를 달성한 1등급 건물도 66곳이나 된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로

드맵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시장 규모는 2030년 93조~107조원, 2050년에는 180조4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의 상업용 플러스에너지 빌딩

아직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에서도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삼성물산이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지은 스마트 빌리지, SK의 과천 게스트하우스, LG전자의 판교 씽크홀 등 대기업을 시범 제작에 뛰어들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지구에 세워진 에너지엑스 DY 빌딩은 상업용 빌딩으로는 유일하게 인증을 받은 건물이다. 지하 2층 지상 5층에 연면적 3000㎡가 넘는 규모인데 1등급을 받았다.

에너지엑스는 정보기술(IT) 건축 플랫폼을 지향하는 스타트업이다. 건축주와 건축사·건설사(시공사)·관리회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에너지엑스는 그 안에서 설계나 컨설팅을 했는데 점차 제로 에너지 건축 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됐다. 그동안 축적한 기술을 선보이고 새 기술을 실증·분석하는 테스트 베드로 쓰기 위해 직접 향동지구에 새 사옥을 지었다. 지난 14일 이 빌딩에서 만난 홍두화 공동대표는 "일종의 모델하우스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현재 구현 가능한 최고의 기술을 적용해 지은 건물"이라고 소개했다.

노원 이지하우스가 패시브 기술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 건물은 액티브 쪽에 강점을 뒀다. 우선 건물 외벽에 태양광 패널을 붙인 것이 아니고 외벽 자체를 태양광 패널로 마무리한 일체형 방식(BIPV)을 도입했다. 창에도 전기를 만드는 반투명 패널을

달았다. 물론 패시브 기술은 기본. 홍대표는 "지열 시스템은 없지만 태양광 만으로도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의 121%를 생산한다"고 말했다.

이 건물 5층엔 대형 모니터를 모아놓은 관제센터가 있다. 층별 에너지 사용량과 발전량 등을 표시하는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이다. 에너지엑스는 이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입혀 원격 제어하는 서비스 제공을 장기 목표로 삼고 있다.

건축비 부담에 속도 조절

그간 빠르게 확대되던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 의무화는 올해 제동이 걸렸다. 건축비 상승 여파다. 제로에너지를 구현하려면 일반 건물보다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제로에너지 5등급을 달성하려면 비주거 건축물은 30~40%,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비보다 4~8% 비용이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인허가를 다 받은 재건축 단지도 건축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무산되는 마당에 이런 추가부담을 안으라는 요구가 무리라는 판단이다. 그래서 올해 도입하려던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의 인증 의무화는 일단 연기됐다.

그렇다고 한정 없이 밀릴 것 같지는 않다. 국제사회에 매년 탄소 감축량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하게 짜인 계획인데, 한 분야를 봐주면 다른 분야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때 제로에너지인증을 받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적률 300%로 30층 높이를 계획 중인 단지가 인증을 받게 되면 3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최현철 논설위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셀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메디메디를 위한 다양한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플랜
- / Part C (HM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저렴한 약 값을 위한 회사별 비교
- /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앤디 김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우리말 바꾸기

‘너’가 맞는 말일까?

“너가 이걸 할 수 있겠니?” “이번에는 너가 한번 해볼래?” 상대와 말을 주고받을 때 ‘너’가라고 하는 사람이 꽤 있다. ‘너’는 문제가 없는 표현일까?

2인칭 대명사인 ‘너’는 뒤에 ‘가’(주격조사·보격조사)가 올 때는 ‘네’가 되는 것이 우리말 어법이다. 즉 “너는 조용히 있어라”처럼 ‘는’이 붙을 경우에는 ‘네’가 되지만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처럼 ‘가’가 붙을 때는 ‘네’가 된다. 따라서 ‘너’는 ‘네’의 잘못된 표현이다.

‘네’를 ‘너’라고 하는 것은 ‘네’와 ‘내가’가 발음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내가 가는 거냐?” “네가 가는 거냐?”라고 말한다면 발음이 비슷해 어느 경우인지 헷갈린다. 그래서 ‘네’를 ‘너’라고 분명히 알아듣게끔 얘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때는 ‘네’를 ‘내가’로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내가 가는 거냐?”라고 대부분 얘기한다.

이때의 ‘너’ 역시 ‘네’가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네’ ‘내가’를 발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네’를 ‘너’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너’는 잘못된 표현이므로 ‘네’라고 해야 한다는 지적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네’를 ‘너’라고 발음하고 적을 때는 ‘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자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재정칼럼

자영업과 노후대책



이명덕
재정학 박사

자영업자들도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연평균 투자 수익률 10%란 투자한 돈이 7.2년마다 두 배로 불어난다는 의미다. 즉, 10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7.2년 후엔 20만 달러로, 또 7.2년 후에는 40만 달러, 또 7.2년 후, 즉 22년 후에는 80만 달러로 불어나는 것이다. 이런 투자 복리(Compound Interest)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주식 투자에 가장 치명적이다. 조금만 마음은 주식시장의 높은 수익률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노후자금 마련도 어렵게 한다.

자영업자에게 한 달 500달러는 그리 큰돈이 아닐 수 있다. 지난 30년(1994-2023)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10.16%다. 30년 동안 꾸준히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비즈니스와 전혀 상관없이 현재 100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을 것이다. 부부가 함께했다면 200만 달러다. 사람마다 소비 규모는 다르지만, 이만한 목돈이라면 편안한 은

퇴 생활이 가능하다.

모든 투자의 기본은 분산투자이다. 자영업자가 한두 개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모든 투자가 한 곳으로 집중된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주식 시장(S&P 500) 투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과 같은 500대 기업을 하나로 묶은 투자 종목이다. 여기서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의미는 500대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설령 비즈니스가 생각한 대로 잘되지 않았다고 해도 노후대책은 마련될 수 있다.

은퇴는 누구나 하게 된다. 사업체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노후를 위해서 사업체를 처분하면 목돈이 나온다. 부부가 노후 생활비를 만들어야 하는 소중한 목돈이다. 주식 투자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소중한 목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걱정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업체를 운영하며 적은 투자라도 해서 수익을 올린 경험이 있다면 쉽게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사람이 노동으로 부를 쌓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투자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은 ‘잠자는 동안에도 내 돈이 불어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고생한 한인 1세대들이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 편안하고 안락한 은퇴 생활을 하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이아침에

그래도 인간이 희망이다



최경애
수필가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것이 꿈만 같다. 사람의 목숨이 짧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아날 때가 있음을 자주 목격한다. 나는 5년 주기로 삶의 단락을 만든다. 5년 전의 나와 후의 나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그 주기가 짧아져 3년 2년 1년, 결국은 하루하루가 되겠지만 진작에 살아왔기 때문에 달리 선택할 길은 없다. ‘그날의 걱정은 그날로 족하다’ 라고 하신 예수님 때문에 5년이 아닌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을 모조리 털어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너도나도 죽음이 목전에 있음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의료 관계자들의 노고를 잊을 수가 없다. 이성을 떠난 영혼의 난민들에게 빛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간직했으면 하는 바람도 크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엔데믹을 선언한 지도 1년이 되어 간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의 5년을 한마디로 정의 하기엔 아직 이르다. 다만 신뢰의 단절이 심해지고 공포는 여전히 떠돌아다니는 것 같다.

그래도 믿을 것은 인간이 아니겠는가? 인간이 사라진 세상은 상상조차도 끔찍하다. 사람은 사랑이라는 양식을 먹으며 성장한다. 세상을 앞서 나가며 시대를 초월하는 것도 사랑이다. 소멸할 운명의 세상은 불완전을 메울 수가 없기에 생명을 대체할 우상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인간을 배제하려는 음모 또한 승리할 수가 없다. 세상을 지탱할 사랑과 양심 선함의 DNA는 인간뿐이다.

최근의 대세는 인공지능(AI)이다. 말린다고 개발이 늦춰질 일은 아니겠지만 인공지능으로 인류를 통제할 수 있다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편리함을 쫓느라 새로운 인공지능을 사들이는 소

비자들은 그들의 피해 망상증을 대물림하는 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건강하고 명료한 정신을 오래도록 유지하려면, 세상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적응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책을 읽기가 힘들다고 해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지 말고 신문을 읽는 수고만 해도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지적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방법이다. 과거에는 시니어층에 해당했던 지적 편식이 이제는 다양한 연령층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자신이 읽고 싶은 것만 찾다가 그것마저 귀찮아서 밖의 세상과 답을 쌓고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5년 주기가 의미가 없어질 만큼 변화의 굴곡이 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변질의 악순환은 인간의 힘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신념 하나를 마음 안에 세우는 것이 절실하다. 하루하루를 창조적으로 사는 것, 굴복함이 없이 스스로 해방되는 것, 이런 멋진 삶으로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해 본다.

BED BUG more ▶ www.sk-pest.com

민대퇴치! ELIMINATE!

▶ 주택 ▶ 식당 ▶ 상가 ▶ 건물

100% SATISFACTION GUARANTEED **에스케이소독** 무료 견적 **571-992-5789**

✉ skpmva@gmail.com

맞춤 용자의 딸인 **마이클 장** *딸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말!
채용 공고 버스투어 가이드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Wonderful TOUR
 24 Yearly Schedule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서 만나는 역사 문화

영국 11박 12일

\$5,890+항공

잉글랜드 & 스코틀랜드 & 아일랜드

방문지
 잉글랜드 (런던-옥스퍼드-우드스톡-코츠월드-첼트넘-스트리트포드 어폰-에이번-체스터-리버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스털링-글라스고-케언리언)
 아일랜드 (벨파스트-부쉬밀-데리-슬라이고-골웨이런)

특전

1. **논스톱 항공**으로 이동 시간은 줄이고 편안함은 높였습니다.
2. 전일정 **럭셔리 호텔** 숙박
3. **미슐랭 추천** 레스토랑 식사 등 **현지 전통 음식** 순례
 (런던 랍스터 정식, 요크셔 푸딩, 스코티시 스타일의 도미와 대구 요리, 송어 캐비어 요리 등)
4. 런던 템즈강 유람선, 스코틀랜드-아일랜드 벨파스트 이동 **유람선 포함** 등 **노우션**
5. 전일정 3년이 넘지 않은 **최신 대형 버스 이용**으로 안전한 버스 이동

4/16~4/26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11일 \$2990+항공
4/22~5/02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4/22~5/05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4/22~4/30 정통 동유럽 8박9일 \$3290+항공
4/24~5/05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4/29~5/05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890+항공
5/03~5/12 바르셀로나&지중해 크루즈 9박10일 \$4390+항공
5/06~5/16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5/07~5/17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5/21~6/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3890+항공
5/24~5/27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6/04~6/12 아이슬란드 일주 8박9일 \$5690+항공
6/18~6/26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9일 \$3990+항공
6/18~6/28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8/06~8/19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14일 \$5990+항공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항공포함)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8일 인사이드 \$1990(항공포함), 발코니 \$2590(항공포함)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9/02~9/13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9/17~9/27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 11일 \$2990+항공
9/17~9/30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 14일 \$4390+항공
9/17~9/25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9/24~9/30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890+항공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10/03~10/16 독일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 11일 2990+항공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17~10/26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10일 \$1190(인사이드)
10/22~10/31 터키 성자순례 (소아시아 7교회) 9박 10일 요금문의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 11일 2990+항공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11일 요금문의
11/12~11/25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13박 14일(사바산) \$3980+항공
11/15~11/25 이스라엘&요르단 10박 11일 \$298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7일 \$2390+항공

원더풀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레나고 703.663.8534 윤태웅

한국관광공사 KOTRA | **VISIT KOREA YEAR 2023-2024** | **한국방문의 모든것!**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1차 4/16 ~ 4/26 4차 10/15 ~ 10/25
 2차 6/18 ~ 6/28 5차 10/22 ~ 11/1
 3차 9/17 ~ 9/27

특전

1.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34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 / 외도+해금강유람선 / 정동진 레일바이크 / 서귀포 유람선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서울 롯데호텔 / 전주 한옥마을 리한호텔 / 여수 소노캄 / 거제 소노캄 / 부산 그랜드조선 / 경주 라한호텔 / 속초 롯데리조트 / 제주 롯데호텔
4.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세남권 \$899+항공 매주 일요일
동해권 \$999+항공 매주 금요일
세남+제주 \$1499+항공 매주 일요일
전국일주 \$2149+항공 매주 일요일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여 \$975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 여 113만원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현대산병원/서울대병원/기원대검정원

토요 특선 당일 투어

통우드가든 3월16일 \$95
필라델피아 4월 6일 \$95
네츄럴 브릿지 5월 4일 \$95
레오보스 비치 6월22일 \$85

워싱턴 벚꽃길 도보여행 \$89 (4인이상 수시 출발)
낭만의 벚꽃 런치 크루즈 3월 29일, \$189

성극 대니얼 \$199
 5/16, 5/30

탑여행사 미동부관광

미동부 일출발
 나이아가라/토론토/천심 몬트리올/퀘벡/플래츠버그/뉴욕
5박 6일 \$1350

핵심적인 동부 명소 관광지만 쏙쏙
뉴욕 일출발
나이아가라
 2박 3일 \$650

미동부 베스트셀러 일출발
뉴욕브루클린 나이아가라
 3박 4일 \$899

뉴욕
 1박 2일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탑여행사 미서부관광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미서부 일주
 서부지역의 주요 도시들과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450+항공

캐나다 록키 4박5일 \$1090+항공
옐로스톤 3박4일 \$890+항공

동남아 여행

3박5일 방콕/파타야 \$590+항공
3박5일 푸켓 \$599+항공
3박5일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3박5일 대만 \$490+항공
3박4일 대만 \$690+항공
3박5일 싱가포르 \$790+항공

일본 여행

3박4일 동경 \$999+항공
3박5일 오사카 \$999+항공
8박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교육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uesday, March 19, 2024 C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적인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f.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흔한 활동이라도 독특한 경험이 중요

의대 희망하는 학부생의 과외 활동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의대 입학 컨설턴트들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과외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이다. 대부분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과외 활동이다. 대입을 위해서 고교시절 내내 여러가지 봉사 활동을 해왔다. 의과대학원 입학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컨설턴트들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의대 희망 예비 학생으로서 과외 활동을 선택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몇 가지를 알아봤다.

관심 분야와 일치하는지 확인
이행책임 신중하게 선택 관리
간결하고 명료하게 성과 설명

의대에 입학하려면 MCAT라는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도 아니다. 대략 대입은 SAT, 법대대학원은 LSAT, 의과대학원은 MCAT라는 표준시험이 있다.

의과대학원 진학을 희망할 정도라면 MCAT는 상위권 점수를 받아야 하고, 학부 성적도 올A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과외활동을 통해서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를 해야한다. 그래서 신중한 의사 결정과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물론 인터뷰와 개인 에세이가 있지만 인터뷰에서 말하거나 개인 에세이에 쓸만한 내용이 또한 과외 활동이다. 과외 활동 선택 및 우선 순위 지정에 대한 몇 가지 조언과 의과대학원 입학사정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활동의 몇 가지 예를 알아봤다.

첫째, 경력 목표를 파악하고 이해하라. 최고의 과외 활동은 의학 및 직업 분야의 특정 목표에 맞춰 개인적으로 맞춤형 시켜야 한다. 과외 활동을 특정 목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개인적인 관심, 가치 및 직업적 포부를 함께 생각해 보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진정한 열정이 있는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모와 같은 외부 압력이나 다른 프리메드 학생들과의 상대적인 비교에 굴하지 않고 대신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회를 추구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연구에는 관심이 없지만 봉사와 자원 봉사에 대한 성향이라면 연구실에 참여하는 대신 그러한 활동을 찾는 게 낫다. 의료 또는 의과 분야에 특히 흥미를 느낀다면 응급실이나 투석실의 임상 자원 봉사, 정신과의 간병인 등 전문 분야별 관심 분야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을 알리고 초기 관심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임상 실험실에 참여하는 것이다. 많은 임상 실험실과 시험은 현직 임상 의에 의해 운영된다. 관심 분야에 있는 것을 선택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라. 학부생으로서 2-3개의 과외 활동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활동이 실제 관심 분야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시작해야 한다.

둘째, 과외 활동에 대한 이행 책임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관리하라.

개인적인 시간 제약과 현재 책임지고 있는 일을 고려하라. 시간이 있다면 임상 작업, 서비스, 기본 또는 중개 연구 프로젝트, 리더십 활동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한 기회에 접근하도록 한다.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시작할 때는 누구나 낯설기는 마찬가지다.



무료 진료소에서 자원 봉사를 하는 과외활동은 의과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부생에게 아주 좋은 기회다. 얼마나 헌신을 하고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bing.com copilot생성]

처음에는 하나의 과외 활동을 시작하고 더 많은 책임을 맡기 전에 학업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 책임을 맡게 된 후 바로 철회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책임질 수 있다고 확신하는 활동만 계속하라.

입학 사정 위원회는 많은 과외 활동에 대한 짧은 참여보다 단일 활동에 대한 장기간의 상당한 시간 투자를 중요하게 여긴다. 의대 희망자도 장기적으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더 보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연구 노력에 의미 있게 기여하는 시간이 의외로 많이 필요하니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의미 있는 기술을 습득하거나 프로젝트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실 작업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활동이 마음에 든다면 초록을 발표하

거나 출판물에 기고하거나 논문을 쓰는 것이 좋다. 과외 활동에 대한 의도적인 참여는 지원서에서 빛나게 된다.

셋째, 지원서의 목적과 함께 과외 활동을 설명하라.

의과대학원에 지원할 때가 되면 과외 활동 설명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자신이 한 일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각 활동을 추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작성해야 한다. 그 결과 얻은 개인적인 성장, 배운 교훈,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었던 영향을 강조해보자. 심지어 과외 활동이 흔하더라도 경험은 독특하다. 겪었던 독특한 임상 경험, 기억에 남는 환자나 도운 멘티, 경력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킨 활동 경험에 대해 설명하라.

장병희 기자

▶ 2면 '의대 진학'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메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야곱의 사막다리
www.jilcontractor.com
703-835-0945
ROOF
20년 이상된 지붕! 점검 필수! (상담 환영)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MD 자이언트 No. 1 에이전트**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5세 영어 → 6세 수학 → 7세 국어 대치동 학원 정식 입문코스



hello! Parents 아이만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양육자도 공부해야 합니다. 헬로퍼런츠(hello! Parents)는 보육에서 대입까지, 학습법에서 아이 건강 챙기기까지, 양육 노하우를 전하는 더중플의 인기 시리즈입니다. 지난해 말엔 특별기획 '학습이 사라진 학교'라는 코너로 7회에 걸쳐 공교육을 대해부했습니다. 그에 이어 이번엔 '대치동 초등 사교육 대해부' 특별기획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 1 "수학의 정식, 왜 3번씩 보나" '생각하는황소' 대표 인터뷰
- 2 수학은 동네 학원 보내라... 단, 영어는 대치동뿐이다?
- 3 "국어는 집 팔아도 안된다" 대치동에 이런 말 도는 이유

대치동 사교육 대해부

그 집 애, 어느 학원 다닐까? 대입 성공의 중요 요소인 '엄마의 정보력'은 결국 학원 정보다. 한국의 연간 사교육비는 26조원(2022년). 정작 학원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 알짜 정보는 학부모 사이에서 알음알음 전해진다. 대치동 학원 관계자 15명과 학부모 12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는 연령은 더 어려졌고, 선행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대치동에선 5세에 영어, 6세에 수학, 7세가 되면 국어학원에 다닌다. 사교육 입문 과목은 영어다. 영어유치원(영유) 졸업 뒤 보내는 학원 대부분이 미국 교과서를 교재로 쓴다. PEAI·ILE·렉스 김어학원이 대치동 '빅3'로 꼽힌다. 이들 학원 합격자 수에 따라 영유 서열이 나뉘기도 한다.

수학은 6세에 '사고력 수학'으로 시

작한다. 사고력 수학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과정(교과 수학)이 아니다. 교과 수학과는 차이를 개념을 다루는 방법이다.

교과 수학이 일방적으로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게 한다면, 사고력 수학은 주제를 던져주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 규칙을 찾게 돕는다. 시메쓰·CMS·소마사고력수학·필즈티클레식 등이 대표적이다.

7세가 되면 독서·토론·논술 학원에 다닌다. 논술화랑·문예원·C&A논술·지혜의숲·MSC 등이 대표 주자다.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학원도 있다. 이들 학원은 과거엔 초3 즈음에 보냈지만, 최근엔 7세로 내려왔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문해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도 배경이다.

초등 4학년을 기준으로 학원 지령도는 크게 달라진다. 본격적인 대입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고력 수학

대치동 학부모·학원 관계자

"미국 교과서로 일찍 영어 떼고 사고력·문해력 키우는 데 올인 초4 때부터 대입 맞춤형 공부"

은 교과 수학과, 미국식 영어는 내신과 수능을 위한 문법·독해 중심의 한국식 영어로, 독서·토론·논술은 독해 중심의 국어로 이동한다. 수학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영어·국어 학원 시간을 줄이는 것도 이때다. 이 시기 가장 인기 있는 수학학원은 생각하는황소다. 이 학원에 들어가려고 과외를 받거나 다른 학원에 다니기도 한다.

영어와 국어는 내신과 수능 준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다. 영어는 문법과 독해 위주 학원이, 국어 역시 비문학 지문 독해 중심 학원이 부상한다. 이 시기 많이 가는 학원은 영어 이맥스·이안·KNS·해빛나인어학원, 국어 기파

랑·지니국어·천개의고원 등이다. 국제 학교나 특목·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문법수업을 따로 듣기도 한다.

사교육 시작 연령이 낮아지면서, 선행과 반복 학습은 필수가 됐다. 반복을 위해 선행을 하고, 선행을 하니 반복이 가능해지는 구조다. 핵심은 수학이다. 대치동에서는 3~4년 선행이 일반화돼 있다. 초등 5~6학년이면 중등 과정을 마치고 고교 과정을 시작한다. 영어도 예외는 아니다. 보통 만 3세인 영유 1년 차에 미국 초등 1학년 과정을 배우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실상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대입 경쟁에 뛰어들다. '애 잡는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이다. 수능은 범위가 정해진 객관식 시험이다. 일찍 시작해 여러 번 반복하면 유리하다. 특히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해 출제되는 '킬러 문항' 때문

에 선행 시기가 더 앞당겨졌다.

선행 학습은 고등학교 때 공부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수능만으로 대학 가던 시절이 끝났기 때문이다. 요즘엔 수시로 대학 가는 학생이 더 많다. 내신도 챙기면서, 수능까지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학생 종합부전형(학종)이 도입되면서, 수행평가도 크게 늘고 동아리 같은 다양한 활동의 중요성도 커졌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어 미리 공부해두자는 전략이다.

2018학년도부터 수능 영어는 절대 평가가 됐다. 따라서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데 수학이 중요해졌다. 대치동에선 초등 고학년 이후 수학에 '올인'하기 위해 그 전에 영어를 끝내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2022학년도부터 실시된 문·이과 통합 수능도 수학에 올인하는 분위기에 일조했다.

전민희·정선언·민경원·이송원·이민정 기자

▶ 1면 '의대 진학'에서 이어집니다

발품을 팔고 연구 프로젝트, 무료 진료소에서 자원 봉사 또는 개인 고습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으므로 이러한 경험을 신중하게 제시하라. 지원서가 일관되고 매력적인 이야기처럼 읽혀지기를 원하며, 입학 사정위원회가 지원서에 제시된 결정과 경험을 통해 지원자를 알 수 있다고 느낄 때까지 노력하라. 그러면 의미 있는 과외 활동이란 무엇인가.

의과대학원 지원 가능한 많은 과외 활동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임상 업무에 관심이 있다면 무료진료소에서 일하고 응급실이나 다른 병원 부서에서 자원 봉사하고 정신과에 앉아 있

거나 어떤 전문 분야의 의사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봉사에 마음이 끌리면 소외 계층 청소년 멘토링, 소외된 지역 사회의 예방 건강 관리 박람회 조직하거나 보호소 또는 무료 급식소에서 일하는 등의 기회를 고려해보도록 한다. 물론 리더십 기회는 찾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학생 단체의 회장으로 봉사하거나, 보건 및 건강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주도하거나, 자원 봉사 팀을 조정하는 것은 의과 대학원 이전에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리더십 경험의 현실적인 사례다.

생물학과 의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가능성에 흥미가 있다면 기초, 임상 연구는 대부분의 주요 학술 센

터 및 대학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다. 상당한 시간이 투자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열정적인 학부 프리메드 학생이 연구실에 합류를 허락하는 교수를 만날 수 있다. 지원자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연락하는 것 뿐이다.

◆ 성공을 위한 추가 팁

가능하다면 다양한 과외 활동에 참여해 보라.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 것은 학부 프리메드 경험의 필수적인 것이며, 시도해 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무의식적으로 너무 일찍 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피하고 새로운 과외 활동을 탐색하고 도약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열정을 발견하는 데는 결코 늦지 않다.

과외 활동 내에서 주도성을 보여주고 리더십 잠재력을 보여 줄 기회를 찾으라. 지원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보여 줄수록,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험은 더 의미 있어진다.

연구, 임상 전문 분야 활동 등도 마찬가지다. 단지 모두가 연구를 하고 있기에 귀찮아할 필요성 때문에 즐기지 않는 과외 활동을 계속하지 마라.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기에 시간은 너무 소중하다. 자신을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의학 분야의 경력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기회를 추구하면 훌륭한 의과대학원 지원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저절로 서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입학 사정위원회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쉽지 않은 과외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일까. 물론 MCAT 성적이나 학부 성적이 모두 뛰어난 지원자들이 의과대학원에 지원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한 다른 지원자만큼 하면서도 독특하고 복잡하고 쉽지 않은 과외 활동에 진심인 지원자를 찾는 것이다.

왜냐하면 철저히 준비가 되지 않은 의대생은 도중에 중퇴할 수도 있고 의술이 아닌 그저 돈을 버는 기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라는 직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전문적이고 수입도 좋은데 그것 때문에 입학 문을 두드리는 지원자를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인 셈이다.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3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방2 + 와2

\$41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 + 와3, 차고2

\$800,000



센터빌 타운홈

방3 + 와3.5
1,496 sqft, 1993년

\$535,000



센터빌 타운홈

방3 + 와3
1,360 sqft, 1985년

\$500,000

꼭,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베일랜드 / 301-399-014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D.C. / 301-399-0140

13001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2000년 이후 21번째 폐교-태백 강원관광대

‘벚꽃 엔딩’ 농담 아니었다...1년에 한 곳씩 지방대 폐교

또 한 곳의 대학이 문을 닫았다. 이번엔 강원도 태백의 강원관광대(옛 태성전문대)다. 1995년 개교한 사립 전문대인 이 학교는 지난달 말로 29년 역사의 마침표를 찍었다. 2000년 이후 대학 폐교는 전국에서 21번째, 강원도에선 동해시 한중대에 이어 두 번째다.

남은 학생의 대부분은 태백에서 자동차로 2시간가량 떨어진 충북 음성시 사립 전문대인 강동대로 편입했다. 태백 지역 사회에선 ‘떡튀’라는 말까지 꺼내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일부 시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폐교 인가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학생 사라지자 주변 상권도 썰렁

지난달 27일 오후 태백 황지동의 강원관광대 캠퍼스를 찾아갔다. 교문 앞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텅 빈 운동장에는 눈만 쌓여 있었다. 다른 학교 같으면 봄학기 개강을 앞둔 시점이지만 모든 학생이 떠나간 캠퍼스는 썰렁하기만 했다. 빨갭게 녹아 가는 교내 안내판은 폐교의 차가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골프산업과 실용음악과 등이 있던 산학관 입구는 단단한 쇠사슬로 묶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다. 카지노·호텔관광과 등 특성화 학과가 있던 관광관 건물도 굳게 잠겨 있었다. 한때 신입생 입학 원서를 받던 응비관 건물로 발길을 옮겼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졸업 가운과 학사모가 놓인 탁자가 눈에 띄었다. 그 옆에는 ‘2024년 학위수여식 포토존 운영 안내’라는 표지판이 있었다. 졸업생들이 각자 알아서 기념사진을 찍고 가라며 임시로 설치한 사진 촬영 구역이었다.

학생이 사라진 대학 주변 상권은 활기를 잃었다. 대학길로 불리는 교문 앞 거리에 문을 닫은 식당과 카페 등이 수두룩했다. 어쩌다 영업하는 곳이 있어도 손님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한중대 캠퍼스 ‘공포 체험장’ 전락

같은 날 오후 동해시 지흥동의 한중대 캠퍼스도 둘러봤다. 6년 전 강원도 폐교 1호였던 대학이다.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아직도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그사이 대부분 시설은 폐허로 방치됐다. 일부 개인 유튜브들은 흉물이 된 건물 안을 돌아다니며 공포 체험 영상을 찍기도 했다. 폐교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대학 캠퍼스가 어떤 모습으로 전락하는지 보여줬다.



1 지난달 27일 강원도 태백의 강원관광대 교문 앞에서 바라본 풍경. 2 폐교한 강원관광대 운동장과 지성관(본관) 건물 모습. 3 졸업식 기념사진을 위한 포토존.



주정환 기사

YS 정부 때 개교한 사립 전문대 한때 학생 2500명 넘기며 활기

재단 비리, 교직원 파업에 휘청

마지막 남았던 간호학과 폐지

“땅도 기부하고 장학금도 줬는데” 비대위 출범 등 지역 반발 커져

현재 본관 건물 입구는 두꺼운 합판을 여러 장 덮어 사람의 출입을 막았다. 그 앞에는 고장 난 트럭 한 대가 욕설이 적힌 낙서와 함께 버려져 있었다. 문이 열린 작은 건물을 들여다봤더니 안쪽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었다. 캠퍼스 안에서 온전한 곳은 동해시 창업보육센터로 쓰는 건물뿐이었다. 원래 대학 시설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 바꾼 덕분에 살아남았다.

“학생도, 학부모도 싫다고 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벚꽃 엔딩’의 속설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서울에서 거리가 먼 순서대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져 폐교 위기에 놓인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한 해에 한 곳꼴로 문을 닫는 추세다. 2020년 부산 해운대구의 동부산대, 2021년 전북 군산의 서해대, 2022년 전남 광양의 한려대에 이어 지난해엔 경남 진주의 한국국제대가 폐교했다.

강원관광대도 처음부터 부실 대학이었던 건 아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개교하고 2년 뒤 입학 정원이 1280명까지 늘었다. 한때 재학생 2500여 명으로 태백 지역 인구 유지와 경제 살리기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교비 횡령이란 학교법인(본진학원) 비리가 발목을 잡았다. 2002년부터 8년간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관선이사)가 학교를 맡았다. 2010년에는 기존 법인 임원이 복귀하고 이사장 부인인 원재희 총장이 취임했다. 당시 원 총장은 태백시민 토론회에서 “법원 판결에서 ‘교비를 법인비로 전환한 것이 횡령’이라고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단 한 푼도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9년에는 교직원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 등으로 극심한 학내 갈등을 겪었다. 당시 노조는 ▶‘유령 학생’ 등 재학생 충원을 조작 ▶보복성 인사 조처 등으로 학교 운영이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학생 충원을 조작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원 총장을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피고인이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는 사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은 커졌다. 2020년에는 간호학과만 남기고 호텔관광과 등 여섯 개 학과를 모두 없애기로 결정했다. 2022년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꼽히면서 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끊겼다. 지난해 9월에는 올해 신입생 모집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16일 강원관광대 폐교에 대한 공청회에서 원 총장은 “학생도, 학부모도 싫다고 한다. 지역 여건이 나빠서, 태백이라는 게 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달 6일 이 학교의 자진 폐교를 인가했다.

“공청회는 요식행위, 시민 염원 배신”

학교 근처에서 송대섭 강원관광대 살리기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송 위원장은 태백에서 30년가량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강원관광대의 개교에서 폐교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과거 강원관광대 창업보육센터에서 특허 출원 지원 등 창업 컨설턴트로 활동한 적도 있다. 만학도로서 이 학교 골프산업과를 다니기도 했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 일문일답.

-비대위가 ‘떡튀’라고 주장한 근거는 뭔가.

“1994년 대학 설립 인가를 받을 때부터 태백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학교가 잘되기를 응원했는데 배신 당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지역 유지는 당시 16만5290㎡(약 5만 평)의 땅을 기부하며 학교 설립을 도왔다. 태백시와 강원

도가 학생 장학금 등으로 지원한 금액도 88억원이 넘는다.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애항심에서 만학도로 학교에 등록했던 시민들도 적지 않다. 학생 충원을 지표를 맞추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했다.”

-폐교에 앞서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

“지난 1월 12일 금요일 학교 측이 공문을 돌리고 나흘 뒤 화요일(지난 1월 16일) 오전에 공청회를 열었다. 생업이 있는 시민 대부분은 평일 오전에 참석이 어렵다. 현장에 가보니 학교 관계자와 취재진을 제외한 일반 시민은 거의 없었다. 나중에 교육부 보도자료를 보니 학교 측은 공청회 나흘 전에 이미 교육부에 폐교 인가를 신청했다. 공청회는 요식행위였을 뿐이다.”

-폐교 말고 학교를 살리는 대안이 있었을까.

“학교를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강릉영동대는 조건이 맞으면 학교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과거 강원랜드가 학교 인수를 추진한 적도 있다. 2003년 태백지역 현대대책위원회와 강원랜드의 합의를 중재했던 황복이 강원관광대 인수였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매각 가격을 높게 부르는 바람에 무산된 것으로 안다. 이제는 지역 사회가 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강원랜드의 지원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정환 논설위원

보험 에이전트 모집입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보험자를 위한 Care Credit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커리어 준비하기

대졸자 52% 졸업 1년 뒤도 불완전 취업...대학 입학 전에 진로계획 짜는 게 좋아

노동 분석 회사인 The Burning Glass Institute와 비영리 단체 Strada Education Foundation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대학 졸업생의 52%가 자신의 학위를 사용하지 않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불완전 취업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타이탄한 노동 시장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생들의 불완전 취업 문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의 경력 궤적과 재정적 안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해당 보고서는 대학 졸업생들의 불완전 취업의 본질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통찰력을 밝히며 조기 취업의 지속적인 영향, 다양한 전공에 따른 불완전 취업률의 상당한 차이, 불완전 취업과 관련된 상당한 재정적 비용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의 주요 결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불완전 취업의 만연

무려 졸업생의 52%가 졸업 1년 뒤 불완전 취업 상태이며 10년 이후에는

45%로 약간 개선된다.

▶ 첫 취업의 중요성

졸업 직후 대학 수준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력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대다수는 수년 후에도 대학 수준의 고용을 유지한다.

▶ 지속적인 불완전 취업

졸업생들이 일단 불완전 취업으로 시작하게 되면, 대다수는 10년 후에도 그 상태를 유지하며 불완전 취업의 고착성을 강조한다.

▶ 재정적인 영향

대학 수준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불완전 취업자들의 소득 격차는 상당하며, 졸업생들, 특히 학자금 대출을 받은 졸업생들의 재정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 전공별 다양성

이 연구는 전공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량적 추론에 관련된 분야와 특정한 직업의 불완전 취업률은 더 낮은 반면, 다른 것들은 더 높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 STEM 분야의 복잡한 현실

모든 STEM 분야가 낮은 불완전 취업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STEM 범위 내에서도 서로 다른 전문 분야 간에 차이가 관찰된다.

▶ 인턴십의 영향

인턴십 경험은 졸업 후 대학 수준의 취업률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학위 분야 전반에 걸쳐 그 가치가

강조된다.

▶ 인구통계 및 제도적 요인

대학 전공과 인턴십이 취업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관 유형, 인종/민족, 성별 및 지리 또한 비록 그 정도는 작지만 불완전 취업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통찰력을 고려하여, 나는 함께 일하고 있는 가족과 학생들에게 학

생이 대학에 입학하기도 전에 진로 계획을 짜기 시작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비록 시간이 지나며 관심사가 변할지라도 그들이 선택한 대학이 관심사에 맞는 올바른 전공과 기회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학위를 취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의 성공을 위한 길을 닦아주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 계획 과정을 일찍, 이상적으로는 대학 이전에 시작하는 것은 내가 모든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된다.

(참조: Burning Glass Institute and Strada Institute for the Future of Work, Talent Disrupted: Underemployment, College Graduates, and the Way Forward, 2024.)

제임스 박 대표 · LA 커리어 코칭

대입 들여다보기

대학생 30%가 자포자기적 행동 보여...불안증·우울증·식이장애 등 잘 살펴야

많은 하이스쿨 시니어들이 올 가을학기 대학 정시지원(RD)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만만찮은 일이다. 물론 배움과 설렘, 자기 발견의 시간이라는 점에서 대학은 많은 학생들의 인생에서 더 없이 소중한 기간이다. 그러나 대학시절은 동시에 스트레스가 많고, 다양한 정신 건강 이슈가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어려운 수업들로 꽉 찬 학업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녹초가 되고, 가족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 친구를 사귀어야 하며,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기도 한다.

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대학생들이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정신 건강 이슈의 요인으로는 성별, 인종, 경제적 차이 등을 포함해서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정체성과 연관돼 있다.

‘미국 대학 건강협회’(ACHA)는 전국의 5만4000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2022년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응한 대학생들은 각기 다른 정체성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에 따르면 약 77%에 달하는 학생들이 완만한 수준이든, 심각한 수준이든 일종의 심리적 압박을 경험했다. 54%는 외로움을 경험했고 30%는 자살 또는 자포자기적 행동을 보였다.

먼저 불안증에 대해 알아보자.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 불안증의 정도가 심각해진다면 불안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불안증의 타입에는 여러가지가 존재한다. 패닉, 대인 관계에서 오는 불안, 그리고 특정 대상에 대해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포비아(phobias) 등이 있다.

불안증은 무기력과 긴장 등 신체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또한 집중력이 부족해지거나, 일상적인 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등 정신적인 증상도 야기할 수 있다. ACHA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가한 학생의 35%는 불안증으로 진단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77%는 불안 증세에 대해 헬스케어 전문가와 상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은 우울증이다. 세계 보건 기구(WHO)는 우울증을 ‘지속적으로 슬픔을 느끼고, 예전에 즐겼던 일에 대해서도 즐거움이나 흥미를 부족하게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전 세계적으로 성인 인구의 약 5%가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ACHA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중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 조사에 참가한 대학생의 27%가 우울증이 있다고 답변했

고, 78%는 우울증에 대해 정신 건강 전문가와 상담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불안증과 우울증은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조사 참가자의 23%는 불안증과 우울증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세 번째로 주의력 결핍(ADHD/ADD)에 대해 알아보자.

이것은 흔히 어린 시절에 진단받지만, 사실상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진단받을 수 있다. 증상으로는 무엇에 집중을 못하는 것, 상황에 맞지 않게 지나친 움직임 보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ADD와 ADHD는 학업적, 직업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며, 자존감과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ADD와 ADHD는 대학생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흔하다.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13%가 두 가지 중 하나를 경

험했고, 72%는 지난 12개월 안에 이 문제에 대해 정신 건강 전문의와 상담했다고 대답했다.

네 번째는 식이 장애다. 적절한 양의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하는 증상이다.

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종종 왜곡된 신체상을 가지고 있고, 실제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 상관없이 자신이 너무 뚱뚱하거나 체격이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체중 증가에 대해 극도의 두려움을 갖는다. 이에 비해 폭식은 배가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음식을 절제 없이 정기적으로 먹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잠을 못 자서 에너지가 저하되는 불면증, 의지와 상관없이 원치 않는 행동 패턴을 반복하는 강박증 등도 조사 대상인 대학생들 가운데 각각 7%, 6%가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빈센트 김 카운슬러 어드미션 매스터즈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백성호 CPA, MBA
경력: H&R Block, U.S. Department of Commerce, Hahn & Associates CPA Firm, James Accounting Service,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Immigration: 영주권/시민권, E2 비자/투자이민, 취업/가족초청이민, 비자변경 및 연장, 종교비자/이민,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회사설립/합병, 국제합작투자, 대정부계약/입찰구매, 사업체 매매, 부동산 매매/임대차, 부동산 투자 개발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마의 14번홀서 '퐁당' ... 이예원은 안 흔들렸다

KLPGA 투어 블루캐니언 우승

지난해 상금왕 이예원(21)이 17일 태국 푸켓 블루캐니언 골프장(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역전 우승했다. 최종 3라운드에서 4타를 줄인 끝에 합계 9언더파 207타로 최민경을 한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2022년 신인왕이었던 이예원은 지난해 대상과 상금왕을 차지하면서 여자골프 일인자가 됐다. 올 시즌에도 여왕 자리를 지킬 기세다. 이예원은 "기회가 된다면 시즌 초반에 첫 우승을 빨리 하고 싶었는데 대회 초대 챔피언으로 우승하게 돼 더욱 기쁘다. 이 골프장은 페어웨이가 좁아 정교한 샷을 해야 하는데, 티샷이 좋아서 버디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예원은 지난해 4월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8월 두산 위브챔피언십과 10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 이어 통산 4승을 기록했다.

이예원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약점이 거의 없다. 모든 클럽을 잘 다룬다. 타수 이득 기준 지난해 티샷은 3위, 아



지난해 KLPGA 투어 상금왕 이예원이 17일 태국에서 열린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역전 우승했다. 최종라운드 2번 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는 이예원. [사진 KLPGA]

이언샷을 비롯한 어프로치샷은 10위, 퍼트는 16위다. 그린 주변에서도 24위로 뛰어나다. 그러나 이예원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흔들리지 않는 멘탈과 클

러치 능력일 것이다. 실수가 거의 없으며, 실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중요한 퍼트를 거의 놓치지 않는다. 이예원으로서 시즌 초반 막강한

경쟁자들과의 우승 경쟁에서 승리를 거둬 더 의미가 크다. 최종 라운드 리더보드 상위권에는 강자들이 많았다. 2022년까지 KLPGA 투어를 지배했던 박민지는 이예원과 한 조에서 경기했다. 또한 장타로 무장해 여왕 자리를 위협하는 방신실과 황유민 등이 우승 경쟁을 벌였다.

체감온도 40도가 넘는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 최종 라운드가 열렸다. 대부분의 선수는 후반이 되면서 집중력을 잃고 타수를 잃었다. 반면 이예원의 얼굴에는 답다는 표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침착했고, 냉정하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2라운드까지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7위였던 이예원은 후반 들어 오히려 힘을 냈다.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타를 줄여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파3의 14번 홀에서 티샷을 물에 빠뜨리고도 보기로 막아낸 장면이 하이라이트였다. 14번 홀은 이 골프장의 시그니처 홀이다. 전장 140야드 정도로 길지는 않지만 '7' 자 모양으로 생긴 아일랜드 홀이라 위압감을 준다. 이예원과 동반 라운드한 박민지가 이 홀에서 티샷을 모두 물에 빠뜨렸다. 이

예원은 보기 퍼트를 욕여넣어 피해를 최소화한 뒤 다음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 만회했다. 이예원은 역시 어려운 파3인 17번 홀에서 다시 위기를 맞았지만, 클러치 퍼트로 점수를 지켰고,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잡아 우승컵에 입을 맞췄다.

반면 13번 홀까지 공동선두였던 박민지는 14번 홀에서 티샷을 물에 빠뜨린 후 더블보기를 했다. 다음 파3인 17번 홀에서는 티샷을 병커에 빠뜨린 뒤 한 번에 나오지 못해 다시 더블보기를 했다.

지난주 개막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두 번째 대회에서도 최종 라운드 단독 선두로 경기를 시작한 방신실은 12번 홀까지 잘 나가다가 이후 세 홀에서 보기, 보기, 더블보기로 4타를 잃어 우승 기회를 놓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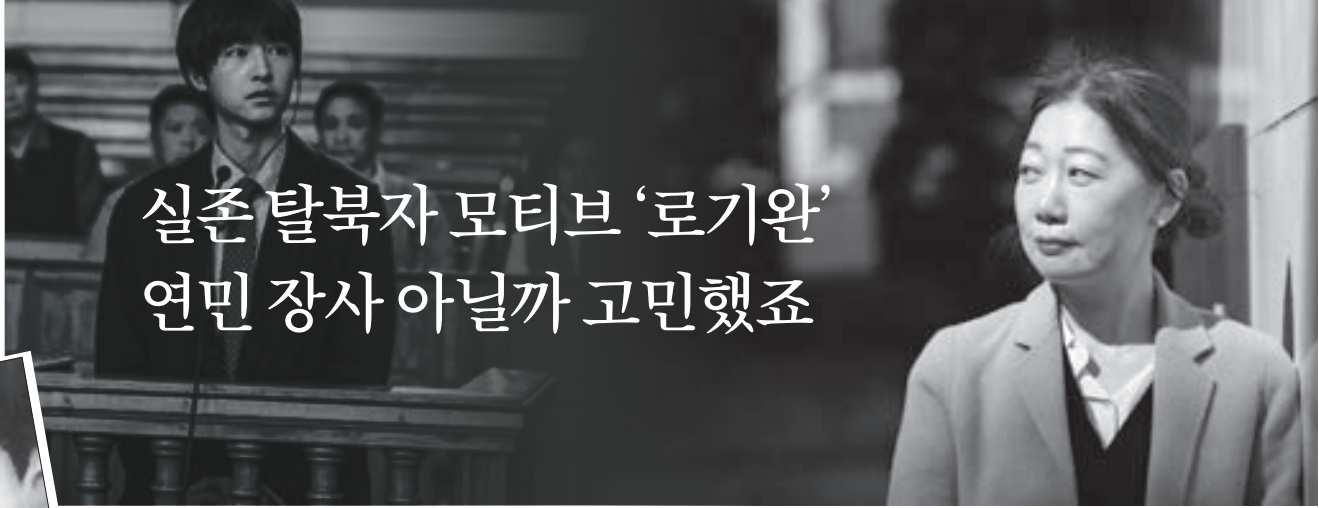
투어 9년 차로 첫 우승을 노리던 최민경은 마지막 홀에서 버디 퍼트를 넣지 못해 연장전에 가지 못했다. 이예원이 합계 6언더파 3위, 황유민·홍정민·김민주·박주영·김우정·이정민·최예림 등이 5언더파 공동 4위를 차지했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지난 1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로기완'(감독 김희진)은 탈북 청년의 생존기다. 북한에서 탈출한 뒤 중국 옌지(延吉, 연길)에 숨어 사는 기완(송중기)은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그 시신을 판 돈으로 벨기에로 떠난다. 방수포에 담긴 피 묻은 유류화를 엄마의 몸으로 여기는 기완은 한겨울 공중 화장실에서 노숙하며 돈을 아끼고, 낮에는 공원을 돌며 유리병을 모은다. 추위를 피해 찾아가던 코인 세탁소에서 잠이 든 기완은 자신의 돈을 훔친 마리(최성은)와 경찰서에서 맞닥뜨리게 되고 둘은 서로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된다.

영화의 원작은 장편소설 『로기완을 만났다』(장비·2011년)다. 기완의 연인 마리와 조력자 선주(이상희)는 소설에는 없는 설정이다. 영화가 기완과 마리의 로맨스라면, 소설은 기완의 행적을 쫓는 방송작가 '나'(김 작가)의 이야기다.

소설가 조해진(48)은 2008년 폴란드 의 한 대학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던 중 우연히 벨기에를 떠도는 탈북인에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창비 사옥에서 만난 조해진은 "『로기완을 만났다』는 공감과 연대에 관한 소설"이라고 했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대한 기사를 읽고, 벨기에로 떠나 탈북인을 취재하며 소설을 썼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창비 사옥에서 만난 그는 "이 소설이 정치적인 시선이 아닌 인간적인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기완'의 실제 모델도 만났다. "그를 취재한 기사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 직접 만나진 못했다. 23살 청년이었지만 160cm의 작은 체구였고, 경찰에 의해 벨기에의 한 고아원으로 보내진 것까지는 실제와 소설이

동일하다.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포함한 나머지는 상상이다." -김 작가와 조해진은 얼마나 닮았나.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작가의 모습을 '김 작가'에 녹였다. 김은 불우한 이웃의 사연을 내보내며 실시간 ARS 후원을 받는 방송 프로그램의 작

가다. 방송을 만들면서도 끊임없이 '연민 장사'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하고, 내 연민이 다른 사람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한다." -그게기가 '윤주'인가. "그렇다. 김은 얼굴이 기형인 여고생 윤주의 후원금을 늘리기 위해 방송 날짜를 미루게 되는데 이 선의의 결정으로 수술을 미룬 사이 윤주의 흑이 악성 종양으로 바뀐다. 김 작가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벨기에로 떠난다. 그런 비겁한 면도 있다." -김 작가는 남의 불우한 처지를 이용해

갑벌어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 소설가로서 공감한다.

"실존 인물에서 영감을 받아 소설을 쓸 때는 특히 그렇다. 브뤼셀에 가서 캐릭터의 뼈대와 배경을 만들 때 '내가 이 사람의 불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했다. 그럴 때 내가 소설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로기완이 살아서 펄떡이는 인물처럼 읽히도록 글을 쓰는 것뿐이다."

-로기완을 대상화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렇다. 그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싶지는 않았다. 대신 로기완의 고통에 기여이 다가가는 인물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래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

-스스로 사회파 작가라고 생각하나.

"소설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다. 시대와 역사를 외면할 수 없다.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사회의 문제를 짚어보려는 사람들이 찾는 장르가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문학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쓴다." 홍지유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간편하게!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발명**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3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① 위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위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광고 영업 0명
사무직 0명
- 기본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코웨이 DC 지점
직원 모집

• 코웨이 코디/코닥
•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 4대 보험 전액 지원
• 자율적인 근무시간
•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광고는 출광료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
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급휴가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여행사 오퍼레이션 담당 및 매니저 급구

703-543-2322
▶이메일: ceo@toptravelusa.com

탑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메릴랜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코웨이 코드 / 코닥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4대 보험 전액 지원
-자율적인 근무시간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hire13@gmail.com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 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키징/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가
능자, 취업비자/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 필수
-1년 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 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 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타이슨스 코너 밑에 위치한 시계 및

주얼리 리페어샵에서 영어 능통한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파트타임 & 풀타임
571-633-0766 / fastfixusa@gmail.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luvacct1986@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 서비스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급휴가/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토랑/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 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 오피스 프론트 일하실 성실하신 분

구합니다. resume 보내 주세요
slim@gastrohealth.com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직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 스폰서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리자 스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슈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직원모집

*College Park Area, MD
-Shift Manager 교대근무관리자
사무실 관리자/정육부 관리자/ POS 지원/
Pricing Analyst/ Lead Cashier
*Capitol Heights Area, MD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 301-333-2209

베이글샵에서 일하실분, 파/풀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몰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사시 & fried

chicken / 파트타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슈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슈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수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베트남 식당.
주 2일 일하실 서버구함. 초보자로 환영.
240-678-5395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분

▶301-926-3638 / 301-538-4246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랜트,

커미션을 원하시는 미용사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4일 또는 2일, 일 하실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애난데일 헤어와일(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풀, 파트타임 가능)
헬퍼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시지 남겨주세요)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렌트함.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동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세탁/엘터레이션〉

스테포드 지역 픽업스토어 수선&캐슈어

Tel. 703-628-9100

픽업스토어에서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엘리콧시티 지역
410-926-3200

픽업스토어 카운터, 엘터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원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한미 홈헬스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집합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 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 jumbo.food@gmail.com
전화 :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 (Cash Only)

문의

AGENT 환영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중앙일보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일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 메케닉 일하실분 폴스저지
703-577-5866

첸트리 자동차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 자동차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계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HD Plus Construction
밀워샘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프로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벨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전체공사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연합감리회 위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부서: 마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위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
휘경력)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
기소개서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 하실분
703-798-7270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행사 진행하실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사인 컴퓨터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Valentine's Day Week (2/13 and 2/14)
동안 일하실 구합니다.
이메일: joymiah0629@gmail.com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더로드,
202-271-2726

버크 태권도 사범/보조사범 (파/풀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 (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베이비시터 구함 Vienna, 주5일, 1-6pm,
아기 픽업가능한분, 성실한분
213-839-3735

밤10시부터 청소하실분들.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버지니아 센터빌
410-825-7941

Fairfax 입주 간병인 구함
87세 여성 모실분. 요리, 목욕, 밤간병인
응급상황시 투입, 운동, 마사지
6일 근무, 낮시간. \$5000 cash 매달
703-568-8024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세일즈(Marketer) 직원,
한국어/영어가능자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4115 Annandale Road, suite 105
Annandale, VA 22003

생활안내 703-281-9660,1(문자)

VA첸트리에 새로 오픈하는 shoe repair,
alteration 기술자 각각 구합니다.
703-340-4777 Lee

방청소하실분. 페어팩스, 스프링필드 지역
703-980-1917

빌딩청소하실분 파트타임 남여1명
장소 칼레지팍 MD 경험자우대
703-725-1233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세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링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아난데일 홈디오 옆 위치. \$2,900
넓고 밝은 3level 타운홈, 방3, 화2+2.5
전체마루, 텍, walkout, 5월 초 입주
703-725-7871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워아웃 베이스먼트 (화
장실 포함). 전체3층, 방4+ 화장실 3.5.
▶703-244-3453

콜롬비아 싱글홈 월\$3,800
방5, 화4, 차고, 2리버힐 학교
410-599-1800 문자요망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 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3개, 화4개, 2카가라지. \$2,850
703-762-6759

클리프턴, 마트 3분, 싱글홈 렌트.
방4, 화4, 전층 리모델. \$3,900
(12/10 이사가능)

571-215-3070(문자요망)

센터빌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세입자 구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세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4 화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 화장실2, 반화장실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콘도 렌트>

Manassas 콘도 \$1,600 / 즉시 입주 가능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
체세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
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0s.f(넓은 size) Costco 가까운 동네
▶703-477-3114

Alexandria 다운타운 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페어팩스 웨그마 걸어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

<방 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매나사스 H-mart 근처 타운홈 방 렌트
walkout 1층 전체, 밝고 깨끗한 큰방,
주방(간단한 취사), 욕실, 세탁실, 주차편리,
별도 출입문, 인터넷, 유모, 비흡연자
703-400-4520

애난데일 방1, 샤워실, 출입문, 간단취사
주차 편리, 즉시 입주. 금연자
571-243-6295

DC 출퇴근 매우용이. 395 exit 근처
집앞에 펜타곤 가는 무료버스 10분 간격.
가구 가전 완비. 여성분·금연자 환영
240-477-3232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거실,
큰부엌, 화장실
571-525-4220(mr. 권)

애난데일 항공간에 방, 욕실, 키친이 꾸며져
있고 침대, 책상, 냉장고, 전자렌지 구비
571-232-6052

버크 월마트 도보로 5분 깨끗하고 환한
타운하우스 1층, 방1, 화장실1(냉장고/세탁
기/전자렌지/싱크/오장/식탁)
워크아웃, 주차 가능. 여성분(학생 환영)
4월15일 이후 입주가능
202-505-0678 (문자 문의 바람)

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별도.
금연자, 그랜마트6분 롯데 11분, 오레계실분
702-622-8853

애난데일 H-mart 옆 방1세움
인터넷, 가구일체, 취사가능, 유모 \$800
직장다니는 남자 환영. 3월말 입주
703-975-0123

MD 렌탈지역 조용하며 교통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가능.
방세저렴, 큰방, 1작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H-mart 뒤 콘도.
화장실 딸린 큰방 렌트
703-300-8669

방 하나 렌트. 주차장 충분, 출입문 따로.
571-237-3411

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 렌트
욕실 가구완비 \$800 여 학생 직장인
703-981-7615 (문자)

알렉산드리아 킹스타운 콘도 렌트 \$750
방1, 취사세탁 가능, 남자분 환영
703-403-7757

애난데일 한강식당 뒤 타운하우스,
지하전체 워크아웃, and separate
entrance. NO smokers.
703-354-3476

애난데일 지하실 방1, 화장실1
703-887-5173

조용한 로턴(페어팩스) 주택가
1층 같은 워크아웃 지하전체(방3개)
넓은 리빙룸, 인터넷, 유모, 냉장고, 세탁기,
주방시설, 출입문 별도
571-488-5860

애난데일 K마트 뒤 싱글 하우스
방 하나 렌트, 주차 넉넉
703-965-2343

애난데일 방1, 화장실1. 애난데일 도서관 옆.
잠만 주무실 직장인 / \$600
703-350-1986

페어팩스 50번도로와 66도로사이
비엔나역 근처 방 렌트, 남자 직장인 환영
571-530-7322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방1개 렌트, 직장인 남자 환영
703-419-0337

롬 메이트 구함 애난데일 (교통편리)
잠만 자실분(남자), 인터넷 및 가구 완비
703-560-6424

Fairfax Burke H-Mart 10분거리
유모,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문자 바람 703-678-7833

NOVA, GMU Burke H-Mart 10분거리
유모, 취사, 인터넷, 방1 \$600
방2개 \$1000, 여자분 한함
문자 바람 571-214-0188

이노바 병원 근처 단독주택 Walk-out 지하
전체(입구 별도) 방2, 욕실2, 거실, 취사가능
\$2,000(전기, 가스, 물, 인터넷 포함)
문의: 703-975-4989 (문자만 주세요)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비즈니스 커머셜 리스팅

- ▶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샵핑몰,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 ▶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 개발 중인 진입로에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 *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명원, 샵핑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 ▶ **싱글 \$520,000~590,000**
방3, 화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 ▶ **타운하우스 \$440,000**
방3, 화2.5, 1car 거라지
- ▶ **콘도 Main level \$300,000**
방3, 화2, 콘도 Fee \$260/월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시?

“가정, 사업체에 만드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1

애난데일 방 세 놓음 703-966-9597
MD 실버스프링 싱글 홈 2층
마스터베드룸 2실, 부엌, 인턴넷 완비,
한아름 10분거리, 넓고 조용함
240-543-6427

애난데일 방 렌트. 방에 욕실, 키친, 침대,
책상, 냉장고 완비, 개인 주차자리도 있음.
571-232-6052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뒤쪽 고급콘도의
사무실 렌트, Wifi 제공
703-835-7404

애난데일 미용실 내 예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싱글/타운/콘도 매매〉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 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방 4, 화 4, 편리한 렌틀러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 4, 화 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당,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 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 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당물,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 건물 단독 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 것 포함)
(10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571-421-0863

컨버넌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975-7718

1. 메릴랜드 자이언트엠프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 점점 있음.
2. DC. 리퀴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 B1(공간 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메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흑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은퇴 Good location.
얼터레이션 가능한 한, 세탁소 오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로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기타

차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703-569-8000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썬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C
· 시간: 일요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교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천 2분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 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 들의 새로
운 삶을 위하여 봉사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 백업이나
수리, 세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시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 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중고품/기타 매매〉

피아노(Everett) Free로 드립니다.
필요한 분 문자주세요.
Tel. 571-668-0805

허리 운동하는 꺼꾸리 싸게 팝니다
사용설명서 있음 \$50
240-477-3232

골프채 판매
- 드라이버 9.5도 315cc
- 아연 닉센트 4...9 SP번까지 8개
- 단랍 (스페인제) 3...9 PS 7개
- 요넥스 6...9 PN 6개
240-475-4166

2024년형 Hyundai Tucson 5700마일
유학생 귀국사정으로 매매 \$27000
상태 최상
703-989-9828

귀국관계로 빅세일
런닝머신 \$150, 이탈리아 가죽 소파 3명
\$200, 등산 배낭 신발, 스틱, 알카라인
싱크대용 정수기 기타 등등
703-597-8909

골프채 아이언 샷 Surpass 3--9번까지 7채
NICKENT 4--9, P, S 9채
240-475-4166

중고 승용차 삽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 분은 연락바람
240-796-0093

2012 Hyundai Santa Fe 6 Cylinder
SUV Silver (현대산타페 은색) 82,000 mile
Good condition \$8,500
703-350-1986

Moving Sale 가격파괴 세일
안마의자 \$950 (Reg. \$5500), 운동기구,
자개장, 냉장고, TV 및 여러 가지 가정용품 등
이사관계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
240-274-4945

Used 정품 혼마 드라이버, 아이언셋을 좋은
가격에 팝니다.
드라이버: 베레스 4 스타, Regular, 9.5도
아이언셋: 베레스 3 스타, Regular, 5-11,
SW (8개)
301-526-7000 로 전화 or 문자 주세요.

주기 미싱 dll 8700 세탁소용
햄 미싱 USA, 4인용식탁 매매
240-475-4166

혼마 남성용 골프채
- 2 스타(02) 아이언 7pec
- 3 스타(03) 드라이버 9.5° 우드, 유틸리티
- 4 스타(08) 드라이버 / 3번 우드
- 4 스타(07) 5번 우드
- 4 스타(07) 아이언 8pec
410-913-8215(문자 주세요)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론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덱,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wani6811
▶571-331-6811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애셋 워싱턴 한인 전문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익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페임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버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크인,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앨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풀 청소. 응급 수해복
구 및 타일 플로우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다쉬워시,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링/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임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구독신청: 703-281-9660,1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유 차량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전기 공사

냉난방

소독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보석

용자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I.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주방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Mr. Young: All right everyone take your seats.
영 선생님: 자 모두들 자리에 앉아라.
James: Is this test going to be hard?
제임스: 이번 시험 어려운가요?
Mr. Young: You'll find out soon enough. If you studied it will be easy.
영 선생님: 곧 알게 되지 않겠니. 공부했으면 아주 쉬울 거야.
Susan: How many questions are there?

수전: 몇 문제나 나오나요?
Mr. Young: Sixty. Okay. I made sure I printed enough copies to go around.
영 선생님: 60문제. 자.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충분히 시험지를 만들었어.
Thomas: Can we use our dictionaries?
토마스: 사전을 써도 되나요?
Mr. Young: Yes you can.
영 선생님: 그래 써도 돼.

enough (something) to go around ;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히 있다

(Mr. Young is talking to his students...)
(영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얘기한다...)

Sara: When will we learn the results of the test?
새라: 언제 시험 결과가 나오나요?
David: Yes, when will we get our grades?
데이빗: 시험 성적은 언제 나오나요?
Mr. Young: You'll get your tests back tomorrow.
영 선생님: 내일 돌려받을 거야.

"If you take your seats we can begin the meeting."
(여러분이 자리에 앉으시면 회의를 시작할 수 있겠네요.)
▶ (one) will find out soon enough: 곧 알게 되다
Jim: "What kind of car did she buy?"
(무슨 차를 샀대?)
Roger: "You'll find out soon enough. She'll be here in a minute."
(곧 알게 될 거야. 금방 도착할테니까.)

기억할만한 표현

▶ take your seats: 자리에 앉으세요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7							28	

가로열쇠

(1)민간 설화나 동화 같은 데에 자주 등장하는 귀신. 사람을 호리기도 하고 짓궂은 장난을 하기도 한다 (3)팔죽 속에 들어 있는 하얀 덩어리. 찹쌀가루나 수수가루로 동글동글하게 만든다 (5)거두어 감. 불리 ~ (7)음을 바르게 인식하거나 발성하지 못하는 사람 (8)조상의 무덤. 그 근처의 땅 (10)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 (11)두 팔을 동글게 모아서 만든 돌레. 두 ~ 가까이 되는 느티나무 (12)과음을 경계하기 위하여, 술을 어느 한도 이상으로 따르면 술잔 옆에 난 구멍으로 술이 새도록 만든 잔 (14)설거지할 때 그릇을 씻는데 쓰는 물건 (16)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지. 탐탁하지 아니한 사람 (18)절의 큰방 머리에 있는 작은 방. 이부자리, 옷 또는 행장 따위를 두는 곳이다 (20)더러운 곳을 닦거나 훑쳐 내는 데 쓰는 헝겊 (21)펄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한 바가지 정도의 물 (22)샘구멍에서 솟아 나오는 맑은 물 (24)모르는 말을 찾아보는 책 (25)품에 끼어있음 (27)인간관계가 넓어서 폭넓게 활동하는 사람 (28)음력 정월 대보름 날 아침에 마시는 술. 귀밝이술

세로열쇠

(1)폭약이 터지도록 불을 붙이는 심지. 사건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 (2)날이 예리하고 짧은 칼 (3)검은 머리에 섞여 난 흰 머리카락 (4)남이 시키는 일을 하여 주는 일 (6)회충으로 인한 배앓이 (7)마실 수 있는 물.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마실 거리 (9)병아리보다 조금 큰 어린 닭 (11)누에나방의 눈썹. 가늘고 길게 굽어진 아름다운 눈썹. 미인의 눈썹 (13)젓니가 빠진 뒤에 나는 이. 사람은 위아래로 모두 32개가 있다 (15)물로 얼굴과 손 따위를 씻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은 대 (16)연줄, 낚시줄 따위를 감는데 쓰는 기구. 아이가 ~에 감긴 실을 풀면서 연을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17)말을 타고 하는 싸움. 사람으로 말을 만들어 겨루는 경기 (18)온갖 종이를 파는 가게 (19)사람에게 잡힌 생물을 놓아주는 일 (20)어린이가 걸음을 익힐 때 발을 떼어 놓는 걸음걸이 (23)온도계에서 온도를 나타내는 유리 대롱 부분 (24)사기로 만든 국그릇이나 밥그릇 (26)나무의 몸에 박힌 가지의 밑부분. 나뭇결에 따라 이따금 박혀 있는 ~는 그 나무가 자라면서 겪은 온갖 풍상이 서려 있는 듯했다

스도쿠

		4		3	8		9	7
		9	7					5
6			9	2			3	
4	2	7	5	8	6	9		
	6		2	9	1	8	7	
			3			2		
			4		2	3		1
	8	3					4	2
7		2					5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6	9	5	3	1	8	2	7	4	7
2	4	7	6	5	9	8	1	3	8
1	8	3	2	7	4	6	5	9	6
9	5	2	4	7	3	8	1	6	9
3	7	1	8	6	2	5	9	4	3
8	3	4	5	2	6	1	7	9	8
5	2	1	4	9	7	6	3	8	7
7	6	9	8	3	1	4	5	2	6

훈	읍	로				륜	음	하
등		웅	표		균	하		등
수	유		롬	웅	하		하	륜
	유	하	하		하	하	륜	
		하			하			
	하	하	수		하	음	하	
물	하		하	하	하		음	하
하		하	등		하	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_____ EXP. DATE: / month year CVS: _____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기타 지역

매매

Hybrid Battery

Recondition Shop
Relocation 가능
쉬운운영, 무경험자 가능
San Jose 지역, 가 55만
(714)552-5714

스시/월남국수 식당

변화한 사평물안, 4000SF
BBQ와 데리아까지 시설 완벽
전체리모델링, 트라이아터 워싱턴주
가격 23만 (네고가능)
기술전수 (206)499-0607

Casino All Auto Program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가능한
간편한 프로그램
고정 고수익
(702)773-2249

ASK미국 무료상담
ask.koreadaily.com ASK미국
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라인 상담합니다!
ASK미국에서 유능한 전문가를 모십니다!
ASK미국문의: 010-970-9999999 askus@koreadaily.com 010-970-9999

비즈니스 상용 용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용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운영자금 용자 간단하고 빠른 용자
Line of credit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기계장비론 새것 & 중고 구입

SBA 부동산 용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SBA 7(a) 용자 10년 상환
기계장비 담보 용자 LTV 80%까지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드레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달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마 샵
Up to 40% 할인
30년 1파운드 \$750 → \$550
40년 1파운드 \$1,500 → \$950
50년 1파운드 \$2,350 → \$1,500
견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마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마로 췌장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빠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야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 삼삼음육단 도안역사당 50% 특별할인가
Tel. 213.33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리주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92CHICKENUSA.COM
92 Chicken KOREAN STYLE
치킨, 핫도그, 떡볶이, 소스, 장벼박스, 도매, 미국전지역

창업주 모집!!!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업종을 변경하고 싶은 창업주를 모집합니다.

✓가맹비 없음!!!!
✓로열티 3년 없음!!!!

식당자리 구함 / 부동산 환영
현 90개 매장 오픈 성황중!
문의하시면 컨설팅 해드립니다.
E2비자 가능합니다.

92 K-CORN DOG

문의: 770-769-7575
다양한 노하우로 성공을 만들어 드립니다.

미전역 좋은자리
찾습니다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